朝鮮日報
夕刊 六日(金)
本紙朝夕刊二十二面

叛軍의爆擊機二臺 政府軍에게射落

首都上空에서空中戰을展開

北軍首都砲擊을準備

【마드리드五日發同盟】叛軍爆擊機六機는 五日午前 마드리드市를 空襲하엿는데 政府軍空軍精銳四機는 即時邀擊하야 首都上空에 壯烈한 空中戰을 展開하엿다 叛軍의二機는 政府軍機에게射落되엿다

【아비라五日發同盟】叛軍北方軍總司令몰라將軍麾下의 前進部隊는 五日아침 마드리드北方四哩 地點에 達하엿다 南方軍도 마드리드 南方七哩 地點까지 追到하엿다는 報道에 勇躍되여 마드리드市中央에 砲彈의雨를퍼부으려고 砲兵隊에게命令하야 砲擊準備中이다

叛軍完全히首都包圍

【하르라五日發同盟】叛軍前衛部隊는 四日未明以來 總攻擊을開始하야 다야隊는 西南의要衝 알코르콘 헤라페飛行場을 占據하 고바로아部隊는 시가及데스과도 로비엔스 飛行場을占據하고 도 안사시오大佐麾下의 正規軍은五日午後 東南郊레쿠丘를 占據하야 完全히首都를包圍하엿다 戰況의進展에따라 總司令바레라將軍도 戰線에出動하야 마드리드市의中心에서 十二키로를 距한 과도로丘에서 戰線을 指揮하고 잇는데 五日午後二時 再次全軍에 前進總攻擊命令을 나렷다

叛軍의『바』將軍 即日入城을豪語

【모스코-五日發同盟】叛軍마드리드包圍 南軍總司令바레라將軍麾下의 左翼군아十八部隊는五日午前마드리드郊外 크로르비엔스飛行場을 扼한小丘를 占據하야 事實上마드리드市의 外門에 到達한셈이다 이小丘는 마드리드市를距한七哩로 마드리드郊外다라쓰게네의 칸바멘드放送局을 指呼間에바라보고 마드리드市의 方角에서는 數條의黑煙이 보인다 바레라將軍은 丘上에昂然히『本日中에는 마드리드市內에 入城할수잇다』고 自信잇게말하엿다

周圍에叛軍迫到 西首都陷落前夜

先鋒部隊空軍根據地를占領

政府軍의反擊失敗!

【파르라(마드리드南方十五哩)五日發同盟】西班牙叛軍先鋒部隊는 四日未明首都마드리드府로向하야 進擊을開始하엿스 正午에는이미 西南郊外알콜만市를衛擊하고 午後二時에는 헤라페空軍根據地를略落하고 다시레가네스村을占據하엿다 衛戍總司令 보사스將軍麾下의 政府軍은 暈레혼 발데모로 各戰線에서 反擊을試하엿스나 叛軍에게 即時擊破되여 크사와로비엔스飛行場은 四日夕刻에 마침내叛軍手中에 歸하고政府軍은 飛行機十四臺를 남기고 潰走하엿다 그리하야 首都의周邊은 全部叛軍의 掌中에들고 政府軍은 겨우 東南郊아칩스丘陵을 死守할뿐이다 叛軍모레드司令바레라將軍은 本營을 首都南方十五粁地點에 移轉하고悠悠히首都入城作戰을 策하고잇는데 首都는 朝來의 戰塵으로黑煙濛濛하야 落城前夜의 悽慘한 狀況을 呈하고잇다

觀菊御會

十日新宿御苑에서開催

【東京電話同盟】天皇、皇后兩陛下께압서는來十日 新宿御苑에서 各皇族殿下를奉始하와 廣田首相以下 文武百官及 民間功勞者等約七千名을 부르시압고 盛大히 觀菊御會를 開催하압시리라이다 當日 兩陛下께압서는 午後二時 宮城御出門 新宿御苑에行幸啓하시옵을 五日盼附하압섯다 午後二時二十五分 御苑御着御하압실 御豫定이신데 當日雨天時는行幸啓를안하압시고 觀菊御會는 御中止하압시고 有資格者에게만 菊苑陪觀을 許하압실러이다

戰時內閣을組織코 首都死守를決意

가바레로首相、悲痛한決意表明

【마드리드五日發同盟】카바레로首相은 四日 戰時內閣組織을 完了하는 同時에『全國民에게告하는書』를 發表하야 마드리드死守의 悲痛한 決意를 表明하엿다 그要旨는 如左하다

西班牙國民諸君 祖國存亡之秋에 際하야 西班牙政府軍은 一致團結하야 政局을 擔當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余는 아나르코 산디칼리스트派의 協力을 要請하야 新內閣을 組織하엿다 諸君이 首都의 防衛에 安心하고 任할수잇도록 余는 미리諸君에게 眞實을 傳하려한다 叛軍은 바야흐로 都門에迫到되엿다 그러나마드리드市民아니全西班牙國民이一致協力하면 敵軍攻擊을 一擧에 殲滅할수잇슬것이다

【마드리드五日發同盟】叛軍의都門肉迫을 압두고 西班牙首相카바레로氏는 四日夜半 內閣改造를 斷行하얏다 新內閣은 社會黨六名、勞働同盟二名、共和左派二名、共產黨二名、共和同盟二名、바스큐會黨一名、카탈로니아左派一名으로되여 正히 人民戰線總動員의 陣容이다

相反한空中戰結果 政府、叛軍兩側發表

【마드리드五日發同盟】叛軍의首都進擊을 압두고 五日 空軍精銳機 十數臺는 數回에 亘하야 猛烈한 空中戰을 演出하엿는데 西班牙政府는 五日夜 空中戰의結果에 對하야如左히發表하엿다

政府는 空軍及 砲兵隊로써 叛軍進擊의 根據地에 對하야 有効한 爆擊及 砲擊을 加하고 더욱 來襲한 叛軍機五臺를 射落하엿다 其中 一臺에는 伊太利人航空士가 操縱하고잇섯다

一方 叛軍은 라라베에 데라레나本部에서 左와如히發表하엿다 空軍部隊는 마드리드 헤라페를衷北地區上空에서 赤色空軍과 遭遇하야 激戰한結果 마침내爆擊機七臺, 偵察機一台를 射落하엿는데右는모다 佛國及蘇聯製이다

日蘇漁業條約 廿日頃正式調印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條約의 起草委員會는 一兩日中에 完了되고 完全히 條約條文의 調整이 完成되게되엿다 따라 有田外相은 來十日閣議에 右條約內容을 附議하야 承認을 求한後 樞密院에 御諮詢手續을 取하야 十八日 樞府本會議에서 可決되면 二十日頃莫斯科에서 正式調印을 完了할러이다

皇后陛下 赤十字總會와 愛婦總會行啓

【東京電話同盟】日本赤十字社第四十四回通常總會及 愛國婦人會第三十五回通常總會는 六日青山憲法記念館에서 開會되엿다 皇后陛下께압서는 健康하압게도 兩總會에 御臨하압시사優渥한 令旨를 下賜하압시엿다

當日 皇后陛下께압서는 屋女官長御陪乘 廣幡大夫以下를 거느리시압고 略式自動車鹵簿로 午前十時 宮城御出門 閑院赤十字社總裁宮殿下를 奉始하와 高松宮妃殿下 各皇族妃殿下 德川社長以下 各役員 奉迎裡에 憲法記念館에 御着 便殿에 入御하압시와 德川社長으로부터 赤十字社의 現狀을 聞召하압시고 十時五十分 君代 奏樂裡에 德川社長의 御先導로 式場에 臨御하압시사 優渥하압게도 明朗히 令旨를 下賜하압시매 閑院總裁宮殿下의 御奉答이 게시고 式을終了하엿다 同十一時 式場御出門 大宮御所에行啓하압시사 皇太后陛下와 御對面 御談話를 召하압시고 御午餐을 御會食하압신後 午後二時十分 大宮御所 御出門 憲法記念館에 行啓 便殿에入御 御少憩하압신後 本野愛國婦人會 會長으로부터 事情을 御聽取하압신後 式場에 臨御하압시사 令旨를下賜하압시고 諸員奉送裡에 同四時 陛下께압서는 還啓하압시엇다

赤十字에수신令旨

【東京電話同盟】赤十字社總會에 皇后陛下께압서 下賜하압신令旨

令旨 本日玆에 日本赤十字社第四十四回總會에 臨하야 親히 諸員을 接見한것을 喜欣한다 本社는 總裁以下 累年의 努力에依하야 內로는 차차 其施設을 更張하고 外로는 益益 諸邦赤十字社와 友好를 敦厚히한것은 深히嘉定하는바이다 社員一同은 時運에鑑하야 協力一致 事業의 伸暢을圖하야써 國家社會에 貢獻하기를希望하노라

商埠地의閉鎖를 外務省嚴重監視

一方的取消는既得權의侵害

【東京電話同盟】國民政府가 從來에自發的으로 開放하엿든 全國十二商埠地를 閉鎖하기로 決定하고 一兩日中에 公布하리라고 傳하는데 五日까지 外務省에는 何等公電이업고 또이러한 通告를 接한事實도업다 그러나 이것이事實이라면日本居留民의居住營業에 重大한 支障을 與하는同時에 既得權益을 損失하게될것임으로 外務當局도 推移를 重視하고 目下眞相을調査하는 同時에 公電의 到着을 기다리고잇다 元來商埠地는 內地雜居를 禁止하기爲하야 條約又는中國側의 自開宣言으로·中國各地(百十四個所)에 設定된것인데 同地區에限하야 外國人의 居住營業의 自由를 許한것임으로 假令 中國側이 自發的으로 開設한 商埠地라 할지라도 一方的으로 商埠地를 取消할과 如한것은 十年來의 既得權益인 外國人의 通商營業의 自由를 根底부터 破壞하는것임으로 中國側의 態度는 實로 重大하야 하지 안흘수 업다 中國側은或은 定期로 滯留를 강제하야 從來의 居住者에 何等保護를 講究하야 既得權益侵害의 未然을 免할 權益을 取할는지도 모르나 滯留는 短期間의 것으로 極히 不安定함으로 居住營業의 自由가업는 點에 잇서서는 何等其他와 다를바가 업다 더욱 最近 汕州 石河莊各地에잇서 實의 排日事件이 頻發하는 此際에 以上과 如한商埠地取消가 實現되면 排日事件의 發生은 停止할줄 모르는 狀態를 誘致할憂慮가 잇슴으로 外務當局은 現地의 報告를 待하야 嚴重抗議를 할 發動하리라고 觀測되고 잇다

『議會를擁護하라』

憤激한民政黨의有志代議士『五日會』를새로結成

【東京電話同盟】軍部의議會權限縮少에憤激한 民政黨의護憲有志代議士會는 五日午後二時부터 新橋東洋軒에서 開會하고 加藤(銅)氏를座長으로 六十四名이出席 劈頭에 武知勇記氏로부터 來議會는 政黨及議會政治의浮沈興亡에關한 一大轉換期에當面하여잇다 最近軍部一角에서 議會의權限을縮少하고 憲政의基調를 紊亂케하랴는言動을 하는者가잇슴으로 吾人은바야흐로 크 決心으로써 時局에對處할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고 述하고 座長에淸水留三郎氏를推擧하야 此際憲政擁護를爲하야 決然의奮起로써 憤起하지안흐면안될것임으로 今日會合者全部로써 一團體를 組織하고 左記決議의 主旨에依하야 今後運動的으로 運動하기로 協議하고 會名을『五日會』라고지은後 六時에 散會하엿다

決議 最近議會政治의本質을 糾明한다고 여러가지로 異說을唱하야 國民으로하여금 光輝잇는 立憲政治의 眞義를 誤解케할 如한것은 自못憤慨하야마지안는바이다 如斯한것은 立憲政治의伸張擁護를 責務로하는 我等이 斷然히 默過容認키 難한바임으로 左의態度를 鮮明한다

一、立憲政治의本義를 宣揚하고 黨心思想의撲滅을期함

一、現役軍人의政治關與를 斷乎排擊함

一、議會의機能을 發揮하야 政黨의機能을 昂揚할을期함

鹿兒島氏現場에서 談

【上海五日發同盟】犯行現場附近은 急報를 接하고 오로바이數臺로 달려간 陸戰隊의 손으로 約一町四方의 交通을 遮斷하고 警戒하고잇는데 午後八時二十分까지 實地檢證을 行하엿는結果 現場附近에서 兇行時에 使用한 것이라고 推定되는 기리 六、七寸의 小刀를 發見하엿다 被害者 鹿兒島氏는 現場에서 말하기를

어두운 거리를 어린아이의 손을 잇끌고 虬江路方面에서 거러오든途中 突然 右側小路로부터 어떤者가 뛰어나오자 목에 번적비치는것이 잇스므로 아이를 안고 몸을 避하엿다 妻는 놀라는 소리를 칠 으로 犯人은 그대로 뒤다라서 電柱그늘로 날라가는드시 자최를 감추엇다 거문 上衣에 거문바지를입엇든것으로보아 中國人學生이것을直感하엿다

本社參觀

▲松鶴公普生徒四十人 宋漢均氏引率下 本社見學

▲沙芝公普生徒二十五人 朴聖緒氏引率下 本社見學

人事·集會

▲張吉相氏 四日午前十一時別世

▲韓根祖氏(辯護士)平南江西郡咸從邑自宅에서 四日 遭內艱

▲閔濬植氏(咯黑普通學校長)就任人事次來訪

▲士師明氏(士師慶南知事令息)六日午前一時半逝去 八日午後二時告別式

▲李鐘玉氏(本社記者)와孫壽慶孃의結婚式은 七日午後三時 尙洞禮拜堂에서擧行

八面鋒

米國은 루스벨트大統領의 重任되엇스므로 對內對外政策을 前대로 踏襲하리라고。

◇

曰, 世界景氣를 依復, 曰 建艦計劃을 進行, 曰 日中外交에 超然的 不干涉主義。

◇

스팀슨의 對滿干涉 失敗以後 米國의 갈길은 超然主義일밖에。

◇

來日이 벌서 立冬。아죽은 안춥은것만 過冬準備는 다 되엇나?

◇

水害六道民은 어찌 살며, 김장、石炭값비싼 都會細民은 어찌 사노?

◇

京城府는 今後 六十年을期하야 八千萬圓의 豫算으로 大京城을·實現하다고

◇

豪華한 生活은 누구나 바라는것。그러나 그 財源은어데서?

◇

시골서 땅섬지이나 가지고 온 이나 月給生活者를 相對로 高度의 稅金을 밧는것은 딱하일。

◇

京城을 크게하라면 大商工業을 誘致함이。

話題論說 再選된米大統領루즈벨트氏

『루즈벨트』米國大統領은 이번 第三十二回大統領選擧에서 民主黨의 大勝利로 드듸여 名譽로운再選의 光榮을 차지하게되얏다 이機會에『루』氏의政治生活의 片影을 紹介하면 氏는 米國第二十六代大統領의從弟로서 一八八二年一月 紐育州名門家에 태여낫다『하-바드』『콜럼비아』兩大學을 卒業하고 一九〇七年辯護士、一九一〇年에는 紐育州上院議員에 當選되야 最年少의民主黨議員으로活躍하얏다 一三年윌슨大統領밑에서 海軍次官이되야 大戰中에는 米國空前의大海軍擴張을 斷行하얏고 一八年七月에는 歐洲에 건너가서『포안카레』『크레만소ー』등과 會見하고 有名한 北海機雷堡塞設의計劃을 力說하야 드듸여 大戰을 한거름더빨리 終結시엿다 一九二〇年에는民主黨으로부터 副大統領候補로 出馬하얏스나 落選되고 小兒麻痺病으로 身體의 自由를 잃엇다 氏는 現在도 下半部가 不自由하거니와 그때부터 實로 政界를 떠낫다가 一九二九年 紐育州知事로다시 政界에 발을내드되엿다 그는 紐育州知事로 잇는동안水力電氣會社問題、議員選擧法의 改革 司法制度改善에 大功을 남기고 一九三二年十一月大統領選擧戰에共和黨『후버ー』大統領을 이겨가지고 米國第三十二代大統領에 當選되것이엿다 氏는 三三年 銀行恐慌이 極度에 達하얏슬때 白堊館의 主人이되야가지고 이恐慌을 征服하기爲하야 所謂 그의第一重要政策인『뉴ー딜』을 提唱實施하려고하얏스나 大審院에서는 그政策의 根幹인 N、R、A와A、A、A의違憲判決을 내려서 氏의資本主義統制案은 罪어떤나라에서도 成功하지못한것과가티 亦是 所期의目的은達하지못하고말앗스다 (李甲寶)

遞信分掌局長會議 南總督訓示

遞信局에서는 五日、六日二日間 簡易保險會議室에서 京城 釜山 元山 平壤等全朝鮮遞信分掌局長會議를 開催하엿는데 五日에 南總督은 다음과가튼 訓示를 하엿다

玆에 遞信分掌局長會議를 開催함에 當하야 一言所懷를 述하야 各位의 決意를 喚起하려한다 現下世界의情勢는 風雲이 非常할뿐만아니라 東亞의 天地亦事態容易치안흔바잇다 此間에 處한 帝國의 立場은 極히 重大하고 且困難하게되엿다 然이나 此困難은 東亞의 安定勢力으로서 그러고도 飛躍興隆의 途上에잇는 我國家의 必然的負擔할 運命이라고도할수잇다 我等國民은一致協力 敢然히 此難關을突破할氣魄과 擔負가업서서는 안될것이다 그러고 我朝鮮은 盟邦滿洲國과內地와의中間에位하야 產業經濟乃至國防上極히重要한地位에在하고 日滿不可分關係가 더욱具體化하게되야 朝鮮의使命은 더욱 其重要性을 增加하게되엿다 그러고 各位의擔當한 遞信事業은 如上의使命達成上 極히重大한役割을 가젓고 此施設의整備擴充과 業務의合理的運營은 其必要尤益緊切하다

各位는 時勢에對한 기픈認識으로 잘地方의實情을 探究하야 中央과 互相提携하야 時宜의施設을 不誤하고 共히 事業의第一線에活動하는 多數從事員을 率하고 親切公正히事에 當케하고 一團愛公의意氣로써 忠實奉公에가直嚴肅하야 浮華放從의弊에陷치안토록 嚴戒하야서 社會의附託과 公衆의 信賴에應하야 我遞運의 進展에寄與할 覺悟가잇서야 할것이다

昭和十一年十一月五日 朝鮮總督 南次郞

日本人又復被襲

中國人學生이突然히短刀로

上海의路上通過中

鹿兒島氏被刺經過

【上海五日發同盟】中國人에斬傷을바든 日本人鹿兒島茂氏(三一)의 負傷은 頸部右側에 短刀와가튼것으로찔린것인데 (고가비침)程度의 輕傷이다 鹿兒島氏는 乍浦路 陸戰隊派遣所에 出頭하야 官憲立會下에 實地檢證을 行하엿다

【上海五日發同盟】五日午後七時十五分 上海檢查事務員 鹿兒島茂氏는 虬江路에니다스 단스홀側路를 通行中 突然히中國人에게 短刀로 찔리웟는데 多幸傷이 輕하여 生命에는 別로關係가 업다 犯人은 現場에서 逃走하엿다

當日鹿兒島氏는 妻子三人을다리고 베노스단스홀側으로부터 大和호텔로드리가는 側路에 當到하엿을時에 찔리운것이다

陸戰隊徹夜警戒

【上海五日發同盟】日本陸戰隊에서는 現行現場을 詳細調查한結果 犯人은 背晴의 裏路를 통하야 北四川路로 逃亡한것이라고 推定되다 同地一帶는 不良分子의 巢窟이라고 觀測됨으로 陸戰隊는 徒步及 오로바이巡邏隊를 增加하야 徹夜警戒에 當하기로되엿다

七十議會

十二月廿四日에 召集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六日閣議에서 第七十議會를 十二月二十四日에 召集하기로 決定하고 各大臣의副署를어더 廣田首相은 同日午後二時半宮中에參內 一般政務와함께上奏御裁可를 仰하엿다 그리고 召集詔書는 來九日官報로써公布할러이다

許駐日大使近日歸國

【上海五日發同盟】中國側情報에依하면 駐日大使許世英氏는 故段祺瑞氏의葬儀列席을 名目으로 近近歸國하야 有田外相과會見하고 顚末及 日本最近의情勢를 國民政府에 報告하야 日中交涉의參考에資케하리라한다

옷감 韓青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三一三九番

돈버리에조흔家庭工業

第一 ... 第二 ... 株式會社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旗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宣傳旗 幟幕

늑막염 濟世堂藥房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振替京城二二二九九番

蜜蜂과蜂蜜의大廉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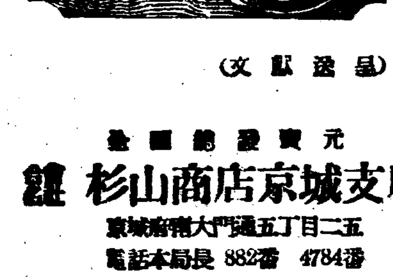
日本養蜂大...

간질

말더듬이 訥言專門矯正院

朝報案內 尋犬

恩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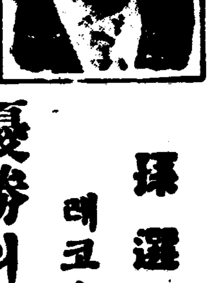
クボタ
石油 輕油 發動機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謝恩特賣 蓄音器景品附
自九月一日 至十二月末日

(文獻送呈)
元賣總發賣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祛痰

止咳露
元造製 慈善堂製藥株式會社

朝鮮唯一의週刊新聞 半島言論界의解剖刀!
週刊中央時報
本紙는月刊으로부터 出發하야 드듸어週刊에이르기까지에 七個星霜이라는 長久無數한難關을突破하면서今日에야確固한基礎를잡게되엇다 이제부터本紙는十萬圓株式會社라는經濟的土臺우에서二千萬民衆에게 소리치려는것이다!
一支局募集一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週刊中央時報社

痔疾專門 回春堂醫院 京城敦化町一〇九ノ一
朝鮮日報釜山支局

마라손王

孫選手 레코-드를通하야 優勝의感激을말함
發賣中
不朽의名盤
優勝의感激(A) 孫基禎吹込
마라손制覇歌(B) 蔡奎燁吹込
一枚一圓五十錢
오-케-레코-드

南朝鮮서 三萬戶를 北朝鮮으로 移住奬勵

總督府立案內容

農業移民의 北進

남조선지방에서 북조선으로 로동이민은 재작년이래 계속하야지난번 풍수해리재민의이민까지합하면벌서 일만오천호에달하고잇는데총독부에서는이로동이민과병행하야 농업용지의배분리용(配分利用)이라는견지에서 주로북조선에농업이민의계획을세우고、이번에새로창립된선만척식회사(鮮滿拓殖會社)로 하여금 적차실행케할 방침이다총독부의 립안한조선내의농업이민의대요는

一、서북조선지방고지대(高地帶)에사만호
一、그외의 농업자가 희박한지방에이만호

도합륙만호의 농업이민을 할예정으로 그중삼만호는 남조선지방에서 서북조선지방에 이주케하기로하고 이민장려시설로서는

一、주택비 려비 농구비(農具費)등은 사업주로부터 내주게하고
二、긔차 긔선의임금을할인하고
三、소개도 알선하여주고
四、인쇄물 영화등으로 선전케하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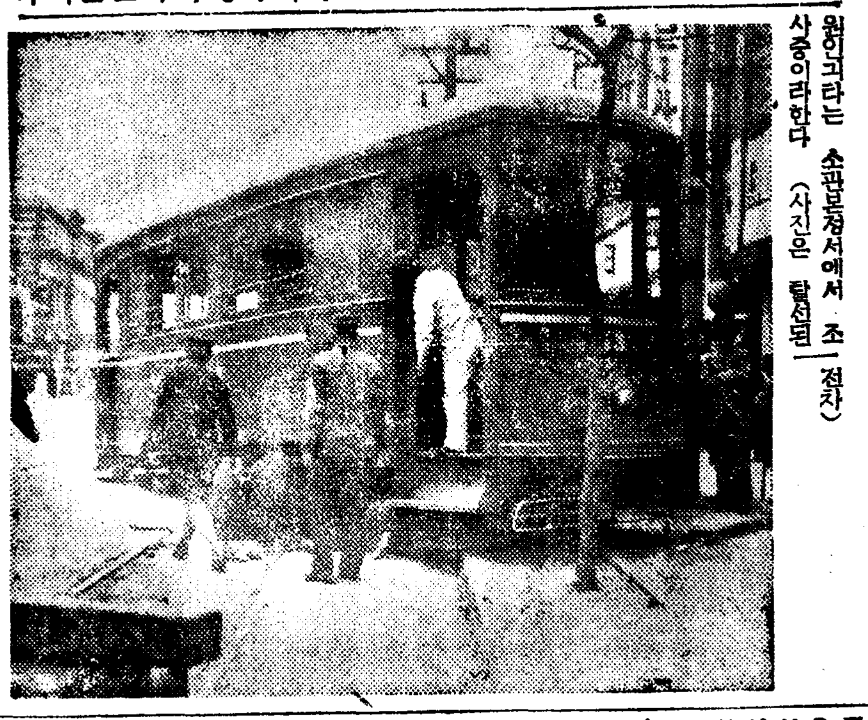
의북안을가지고 이주지에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배치 농업경영의개선 공동리용시설등을 할방침이다 그러나 북조선에농업이민이 과연성공할런지는 극히의문시되고잇다 즉기후와풍토가달으고 농사지을 종류와 방법이달은관계가 만허 남조선농민이 북조선에 이주하여도 결국로동에 전향하던가 그러치안흐면 간도(間島)방면으로 흘러드러가게되지나 안흘까하는것이벌서부터 우려되고잇다 그래서 아직실지까지에는 상당히연구를 하여야할바가 만히남어잇는터이다

電車脫線騷動

車軸이붙어저鋪道우로進行

明治町一帶一時混雜

륙일 오후한시십분경 남대문통(南大門通)삼정목 대판조일신문경성지국(大阪朝日京城支局)압 전차길에서 때마침 동대문을 떠나 로량진(鷺梁津)으로 가는제오십삼호 전차운전수 박관순(朴寬淳)이가 그곳에 다다럿을때 전면(前面)외쪽차축(車軸)이 붙어지면서 진행하든속도로 전차는 외편쪽으로 탈선하면서 포도우에 올라안젓다 그차에는 손님이 약오십명이나 잇섯스나 다행히 부상한사람은 하아도업다고한다 그와가티 탈선되자 곳동대문 차고(東大門車庫)로부터 다수한 인부들이 현장에와서 복구에 노력한 결과 약한시간삼십분이 지난 오후 두시이십분경 겨우복구되엿다 이사고로말미암아 명치정(明治町)정류장과 황금정(黃金町)일정목사이에는 되도라 운전을개시하야 승객의편리를 도모하엿다 사고현장이 시내의 제일번화한장소인만큼 일시는 수천의 군중이 모히여서 일대혼잡을 이루엇다 원인이라는 소관본정서에서 조사중이라한다



(사진은 탈선된 전차)

列車가正面衝突 十四名이即死

四日圖佳線의慘事!

【大連五日發同盟】=滿鐵本社着電=사일오후한시이십분 도가선(圖佳線)의 림구(林口)오사혼(烏斯渾)간 삼백칠십일킬로의지점에서 제이렬차와 십삼렬차가 정면충돌하야 승무원사명합 려객십명이 즉사하고 려객이십륙명은 중경상을 당하엿다

同別報 【奉天五日發同盟】철도총국입전에의하면 사일오후한시이십분경에 도가선에서발생한 렬차충돌사건의 현장은 방금가영연중의빌리림구(勃利林口)오지혼(烏斯渾)之璵부정거장사이에서 혼합렬차 제이렬차와 화물차 제십삼렬차가 정면으로 충돌한것인데 즉사자는 긔관수 평정청치(平井清治)긔관조수 등영문일(藤永文一)동조우팔장(鳥羽八藏)의네명과 만주인 승객일명이다。이급보를접하고 목단강으로부터 구원렬차가 현장에급행하야 부상자는 림구철도병원에 수용하얏다。그리고 동선로의 복구는 한이틀가량걸릴모양이다

醉漢暴行三態

륙일새벽 서울거리에는 밤술을 울하다가 경찰에 붓들린 사건이세가지나 잇섯다▲오일오후열한시경에 시내성북정(城北町)일백칠십번지의 이십호 조경홍(曹景洪)(三)이는 시내종로이정목『빠·마니라』아페서 시내청진정(淸進町)『빠·완다』의 고용인유명식(劉明植)(三)이가 어떤녀자와 이야기하고 잇는것을 트집을부처서 폭행을하고 잇는것을 소관종로서원이 검속하엿다

▲륙일 오전세시경에 시내종로삼정목 이백사십오번지 신범희(申範熙)의 웃지점에서 시내앵정정(櫻井町)일정목 일백삽십륙번지 세탁직공 박옥서(朴玉瑞)(三)가 술이만취되여 폭행을 하기시작하야 그곳 작부로잇든 리산월(李山月)(二)의 원손 색기손까락을 물어떼고 또 작부리명화(李明花)(二)의 오른손 엄지손까락을 물어떼여 각각중상을 입히다음 드듸여 소

陋名써인詐欺漢에게 切齒扼腕·鐵拳暴風

西署留置場의넌센스劇一幕

일곱달동안 두명이 아지못할 사긔한의 일을마라본중 억울하게도 공범혐의로 류치장신세가되자 절치액완(切齒扼腕)설분할날을 기다리든중 의외에류치장으로 드러오게되여 철권을휘두르며 웬변들다가 경관의제지로목적을 달치못한 류치장속에 일어난넌센스극 ─보─지난달이십팔일오후칠시경 천승경성분점(川勝京城分店)에사람을보내서 위조전표로 석유등을사긔하려든 범인은 당시에인부가 체포되자 자취를감추고말어섯든 황금정(黃金町)이정목삼십륙번지 전대옥(全大玉)(三)인데 시월삼십일영락정(永樂町)국수집에서 체포되여 서대문서 류치장에 드러가게되엿는데 공교롭게도 그자가 사용한인부최윤서(崔允西)(三)와가튼방에 드러가게되여 격분한최가그를 구타하려든순간에 경관에게 발견되여 딴방으로 옴기게되엿다 이자는 그밧게도인장과전표등을위조하야세번이나 사용하엿다고한다

▲륙일새벽 두시경에 시내돈의정내외주점에서 양주(楊州)서울라온 리순남(李順男)(三)이와 리병국(李炳國)(三)이란사람이 술을잔뜩먹고 서로싸우며 폭행을 마음대로하다가 마침 종로서원에게붓들려가섯다

不貞妻찻는

男便의搜索願

결혼칠년은 부부생활의 권태기(倦怠期)인가 ─ 륙일아침 본정서에남편은 마누라를찻고 마누라는 그리운남편을 차저달라는 눈물겨운 수색원두장이 드러왓다

아현정(阿峴町)이백륙십사번지 리병히(李秉熙)(三)는 지금부터 십삼년전 조성녀(趙姓女)(二)하고 백년해로의 언약을맷고 장남 영묵(英默)(七)이와 장녀 리간란(李千蘭)(三)의 두남매를 다리고 텁업는 품파리를하여가면서도 룡업는 자미잇는 생활을 하여오든바 『뷔-나스』의신(神)은 악작스러운 작란을 시작하야 지난 구월부터 조성녀는 그근방 가튼정사는 오십칠번지 리도형(李道亨)(三)이와 눈이마저 위험한 밝기를 계속하여오다가 드듸어자기남편의 눈에띄이게되자 지난달이십오일 저녁은 일부시꾸되어 조성녀는 울며떠르는 영묵이를 아버지가둔버리고 하고잇는 동대문밧(東大門外)일터에 내여버리고가란이를더불고 일편리도형도 『때무든』칠리시리와처자를버리고 장래시대의사랑은 맹목(盲目)이라는듯이 새로운세계를차저 몽둔감추어버리엿다고한다

定平赤農事件送局

豫定을다어六日咸興法院에

【定平支局特電】루보=한때는칠십여명의 농조원들을 검거하야 대공황을이르킨 제삼차정평적색농민조합(定平赤色農民組合)사건은 지난 오월초순에 정평경찰서에서검거하야 취조한지 칠개월만에 겨우 끗을내게되여 륙일에 한봉상(韓鳳相)등 열명은 치안유지법위반의혐의로 함흥(咸興)지방법원검사국으로 보내엿다 이날 정평경찰서와 정평정거장에는 피의자들의 가족들이다수히나와서 눈물을먹음고 전송하엿다

盛勢의共軍襲來 森林警察隊와激戰

機關銃가지고警察廳에猛射

住民傷害·民家衝火

【咸興】이일오후열한시경 긔관총을가진 백여명의 공산군이이도구(二道溝)경찰서를 중심하야 동조락을 포위하고 경찰서를상대로 사격을 시작하얏다 삼림경찰대 제이중대 ○○명급치안대○○명은 합동하야 즉시응전(應戰)하얏는데 격전네시간에 공산군은 마가자(馬家子)방면으로 물러갓다 공산군의 피해는 미상이나 삼림경찰대원일명전사 세명중상삼명랍거(拉去)장총네정 탄약오백발을 빼앗겻다 그리고 치안대 일명이부상이주동포등오명중상을 당하얏다。그리고 삼일오전하시경에는 김일성(金日成)의 일대가 룡천진(龍泉鎭)방면에와서동지민가 설흔두집에 불을질러 태워버렷다 방금 혜산진대안의 각지는이 가티 공산군의 횡폭이 절정에 달하야 주민들은 넘어서 수백명이 혜산읍으로 피란하야왓다

東興對岸에 六十餘共軍出現

民家에放火、金品强奪

朝鮮側警官越境交戰二時間

【新義州】지난사일밤열한시이삼분 평북동흥(東興)서 리죽(羅竹)주재소대안 구도구합압동(九道溝哈鴨洞)부락에 공군(共軍)만순만(萬順萬)일파 륙십여명이 잠복하야 민가에 방화(放火)코금품을강탈한다는 정보를맛고 동주재소에서는 동흥서에 보고하는동시에 응원을 어더 월경교전두시간에 이르러 공군일파를격퇴한후 오일오전세시반 무사히도라와다는데 피해정도는 방금 조사중이라한다

老婆轢傷

오일오전세시경에 시내종로삼정목 단성사(團成社)압해서 시내 인사정(仁寺町)평안(平安)택시 경(京)일천이백륙십이호 자동차에 허우돈(許雨頓)(七)이라는 로파가치여서 왼쪽다리를 분지르는데 곳시내부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明日立冬

칠일은 음력구월이십사일로 립동(立冬)이다 오늘부터 치운삼동(三冬)을 지날준비에 밧븐때이다 농가에서는 추수동장(秋收冬藏)을하지그대로 거둠에 눈코뜰새가업고 일반가정에서는 김장거정에 정신이 펄펄날리고 어름이 꽝꽝어를날도 눈압헤닥처와서 벌서부터 아침저녁으로온도가갑작히 내리는때가만허 거리에는 외투、목도리、장갑등겨울무장을 가춘사람이 눈에띄이기시작하엿다

土兵側屍體 卅五個遺棄

【哈爾濱五日發同盟】산강본부대(山岡本部隊)휘하 하지(下枝)부대의 송정(松井)부대는이일오전여덥시빈강성목란현(賓江省木蘭縣)부근에서 조정승전(鳥井勝田)부대와 협력하야토비약오십명을 공격하얏다 그리하야 격전오시간후에 이를 격퇴하엿는데 적의 유기한시체가 설흔다섯이며 아측의 손해는 전사한명과 부상자수명이잇다한다

산과대는 지난달이십일 전영한시 빈강성(濱江省)빈현(賓縣)부근에서 약오십명의토병을 공격해서 모다해처버렷는데 이싸움에조장 토옥(土屋)씨는전사를햇다

兵士의宿泊料 橫領한町會有力者

【釜山電話同盟】부산헌병분대(釜山憲兵分隊)에서는 오일밤부내수정정(水晶町)정내 유력자두명을 불러다가 엄중취조한후 일단돌려보내다가 륙일도계속하야 관계자들을 소환취조중인데 이것은 소화팔년봄에 만주파견부대가 부내 민가(民家)에숙박할때에 숙박료를 그정회에 모다귀부하야 수백원을 국방헌금으로서 밧치기로되엿든바 정회간부수명이 공모한후 그대부분을횡령한혐의인데 그들중에는부회의원등 유력자도 석겨잇서 자못 일반의 주목을 끌고잇다

西氷庫江上에 沈沒慘事

배끼리正面으로衝突

사공한명이빠저죽어

엿새날오전열시십분쯤되여 부내서빙고정(西氷庫町) 구도선장(舊渡船場)압 강가운대서 자갈을잔뜩실은 목선한척과 철재를가뜩실흔 가든배한척이 서로충돌되여 굉장한음향과함께 두배가다깨여지면서 철재실은배의사공 리평식(李平植)(三)、문창수(文昌洙)(三)、신국서(申國西)(三)등 세명중에서문창수한명은무사하엿스나 자갈배에탓든두명─서명이미 피밋 자갈배에탓든두명은 행방을어찌나오지못하야 겨우 목숨을건지엇다 원인은 철재를실은배가 한강인도교쪽에서 서빙고편으로향하고 나려오다가 강한가운데에 이르러서는 물이 넘어 거칠므로 강가상자리로 배를 저어가다가 나려서 바(繩)로 끌고 가든중 때마침 반대방면으로부터 오든 자갈배가 부드친바되여 그런 참사를 내인것인데 이급보를 바든 소관룡산서에서는 김(金)보안、성고(成高)사법두주임이 서원여러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가 진상조사를하는중이다 그리고 이 룡시의 참변으로 인해서 서빙고 강가는 한때 큰 소동을 이르엇다。

中島山口兩部隊 土兵團討伐狀況

【奉天五日發同盟】=關東軍本部發表=토병토벌을 하기위하여동변도동북지구(東邊道東北地區)에 출동중인 우도(牛島)、산구(山口)부대는 각지의 토병을 처서파하고 숙정공작(肅正工作)에 노력하고잇는바 산구부대의 희다(喜多)부대는 사흔날오전여덟시 본계현(本溪縣)제삼구부근에서 공산군삼백명가량을만나 역시처물리첫다 이싸움에서 일본군중은 삼등병 장곡천희작(長谷川喜作)씨가 전사를햇고 또가등상병 장사수(庄司壽)씨는부상햇다 또우도부대의 복산(福山)○대는 사흔날 오후네시쯤되여 봉성현(鳳城縣)제삼구부근에서 백오십명의 합류된 토병을 공격하여 모다 헤처버렷다。이통에 일본군은 부상비명을 내인외에 우도부대의 나량(奈良)부대는 이튼날 오후다섯시쯤 되여 전자구(甸子口)부근에서 조선○○군 약오백명가량과 싸움을해서 이를 처물리첫는데 상등병총원효이(鍾發孝二)씨는 전사를 햇다

山崎部隊土兵擊破

【哈爾濱五日發同盟】산강부대의

酒井小尉戰死

【奉天五日】

大邱、平壤兩府의 瓦斯營業遂正式許可

대구(大邱)、평양(平壤)두곳에서 오래동안 문제되여오든『까스』사업경영허가는 륙일에 드듸여체신국에서 두곳에 한꺼번에 허가의 지령을나리엿다

명치사십년에 비로소 경성과 부산(釜山)에서『까스』사업을 경영하도록 허가한뒤로 이래이십여년동안에 그두도회지의 다음가는 대구、평양두지방에서도근년에 그경영운동이 맹렬히일어나서 지금까지 문제되여오든것인데 이제야 비로소 허가되여 이로부터 그두곳 부민들은일상생활에 만흔 편의이잇게되리라한다 평양것은 서선합동전긔주식회사(西鮮合同電氣會社)의경영으로하고 대구의것은 대구공영으로하기로 되엿는데 조선안에서 『까스』사업을 공영으로 하기는 이번의대구가 처음이라한다 두곳모다처음에는 수용호수 일천호내외로 예상하는데차차 가정수가될에따라 상당히 보급되리라한다 시설관계로 명년말까지에는개업하게될예정이라한다

重要建物의 消火器檢查

京城消防署에서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에서는 그서원세명을 부내 각백화점 관공서 학교 병원 려관 음식점 흥행장 신사(神社)불각(佛閣)전당포 기타 공중의집합장소로백평이상되는 건물에 파견하야오일부터 하로평균 열다섯곳식의 예정으로 비치한 소화기(消火器)를 검사하고 간단히 파손된것은 즉시 실비로 수리를하여주기로되엿다한다

겨울의 화재긔는 림박하엿는데 백화점이나 병원학교등 만흔 사람들이 집합하는곳에 각기 비치한 불끄는 기구의 대부분은 약품을 사용하야 쓰게되는 관계로 전문적기술을 필요하게되는 까닭에 대개는 그저 설비만 해두엇슬뿐이고 그사용 방법도 알지못하고 그냥 더저두고잇는 현상이며 또한 기구등은 불완전하기 짝이업다한다。그래서 소방서에서는기회를 시하야 그효력을 실현하고 수리도 하기로 되엿인데 이런 불끄는 긔구만 잘사용한다면 대개 적은 정도에서 그칠수잇슬에도 불고하고 모다그기구의 사용방법을 알지못하고도 아비친한화재를 이르키게되는터이므로 이로부터는 각경찰서에서도 공중의집합장소 더욱이 백화점가튼데는 완전한 설비를하도록 경고할터이라한다

廣立記念式盛況

【廣梁灣】괴부광량만공보교창립이십오주년 긔념식은 예정과가티 지난오일오전십시부터 동교강당에서 삼백교창사회하에 시작되여 오후삼시에 폐회하엿는데 이날의식순은 다음과가렷다한다

一、記念式 二、敬老會
三、學藝會 四、祝宴

의복가음은 질기고 빗갈조코 물안빠지고 갑이싸웁니다
송고단

天氣予報

概況 高氣壓은 日本中部에 七七〇粍를 보이고잇고 朝鮮及北滿洲도 氣壓은놉흐나 南滿洲에 局部的 低氣壓이잇고 揚子江中流에도 低氣壓이잇다 朝鮮、滿洲는 흐리고 日本內地는개이기쉽다 朝鮮의 氣溫은 昨朝보담 三度內外 놉하젓다

豫報 京城地方 今夕은흐리고 때로는 적은비가 나리다 明日은 曇後晴 京畿道全區도 갓다

昨日最高 一五度四
同最低 一度五
今朝最低 三度三
今日正午 一三度五

運動競技

東京올림픽會場 神宮外苑改築

鐵道關係局會議

【東京電話同盟】一九四〇年에東京에서 開催될 第十二回世界올림픽大會를 압두고 鐵道省에서는 五日에 運輸、工作、經理、觀光各局으로부터 關係官이 出席한가운데 非公式으로 會議를 開催하엿다 지난二十三日에 開催한 第十一回올림픽視察을 爲하야 伯林에 派遣하엿든 高橋運輸局事務官의 報告를 聽取하고 이것을 中心삼어 具體策을研究한바 來週에第二回會議를 열고方針을確立하기로되엿는데 問題되여잇는『스타디움』에 關하야서는 運輸事務關係로보아서는 斷然神宮外苑을 支持할方針이다 이根據는 神宮外苑은 省線市電과不遠間建設될 高速度鐵道의 三者를 利用할수잇슴으로 十萬人의 運送도 어렵지안으며 또한國內情勢와 經濟的立場으로 보아도 새로히 『스타디움』을 建設하는 것보다는 神宮外苑을 改造하는 것이適當하다 獨逸『그루네왈드』에잇는 大『스타디움』에 比하야서는 종간弱한感이 업지안흐나 『로스앤젤스』에比하면 오히려優越하야 『스포-츠』日本으로서부 그럽지안타는 意向을 가지고잇슴으로 萬若體協其他로부터 照會가잇다면 서슴지안코 神宮外苑을支持할方針이라한다

體協改組를決하고

理事、評議員辭職

聲明書를發表

【東京電話同盟】東京올림픽大會開催를압두고 我國의現狀으로보아 一大轉回를要望하고잇는 大日本體育協會에서는 그改組問題를依然 五日午後五時부터 丸之內中央亭에서열린 評議會에上程되여 滿場一致로 이를承認하고 聲明書를 發表하는同時에 加盟十六團體로부터 選出한理事、評議員二十二名은 모다辭表를提出하고 各自所屬團體로 復歸하기로決定되엿다 이에再建實行運動은岸體協會長、副島兩올림픽委員의歸京을 기다려 着手하기로 하고 現理事、評議員은 殘務整理와實行着手까지 留任하기로 되엿다

聲明書

體育運動은 國家社會에 對하야 莫大한影響과 使命의 重大함은 더말할것도 업다 時代의 趨勢는 吾等의 責任을 더욱急激히 過重하게하고잇슴을痛感한다 玆에 皇紀二千六百年第十二回世界올림픽大會를 東京에서開催하기로 決定되여 吾等의任務는 널리 世界의運動競技會에對하기까지 擴大하여젓다 結成의 根本精神은 國家的見地에 基하야 國民體育의 向上을 圖謀하며 運動競技의進展을 期하야서 國民精神을作興하고 國威를 發揚하는데잇다 刻下 運動競技界는 未曾有의 重要時期에 際會하야 안으로는 國家의 進運에 添하고 밧그로는 世界의 興望에 報答할것을 講究하기 爲하야 이에 我協會創立의 根本精神에 則하야 過去의經驗에 鑑하야 構成하되 各競技團體가總動員하야 組織强化와 急速한 實現을 하야서 그使命을 遂行함에 遺憾이 업슬것을期한다

活躍! 躍進의가을!
虛弱한身體로는努力도虛事임니다
机上에! 職場에!
恒常『ロクミン』을 活用하십시요
疲勞恢復과 健康을增進식히는 效力이야말노『ロクミン』의生命입니다

補血·强精·强壯劑
ロクミン
로구민

이러한분은服用하시요
房後衰弱한人 手足厥冷한人 心身虛弱한人 腎氣不足한人 不眠症이有한人 神經衰弱한人 倦怠感이有한人 精力減退한人

效能
▲神經衰弱▲早老
▲肺結核▲老衰防止
▲肺尖가다루▲倦怠感
▲精力減退▲盜汗
▲貧血▲食慾不振

藥價 五〇〇瓦入 金三圓也

發賣元 趙膏藥 天一靈神丸 本舖 天一藥房
京城府禮智町

安東縣紹介版

滿洲初入의關門 朝鮮과最近接地
人文의歷史的接觸이已久
只今의安東省首府

安東縣은 우리朝鮮으로 滿洲에 가는 最初入의 關門으로 朝鮮과가장 接近地인바 當地는 日露戰爭時 黑木陸軍大將의 引率한 征露第一軍八萬의 兵站根據地로서 敵을 驅退한後 同年六月陸軍小佐大原武慶氏가 第一次軍政官으로 來着하야 軍政署를 開設하고 軍政行動에關한諸般施設과 市內安寧秩序維持에努力하얏다 明治三十九年五月에日本領事館을 開設하고 同年十月一日에 軍政署는 廢止되엿다 當地滿洲人街는 淸光緖二年一月二十四日에 安東縣公署가 設立되여 縣政을 實事하야오든바 昭和六年(民國二十年)九月十八日에 事變이 勃發하야 舊政權과 行政機構는 解體되고 滿洲國政權이 樹立되엿다 昭和九年(康德元年)十二月一日 地方制度改革에 伴하야 元奉天省에 所屬하얏든 安東、鳳城、莊河、岫岩、寬甸、桓仁、通化、撫松、輯安、臨江、長白의 十一縣를 分離하야 此를 安東省이라 稱하고 安東市에 省公署를 置하얏나

位置及地勢

當地는 北緯四十度六分五十二秒에 東經百二十四度四十秒에處하야잇는바 秋田、北京、紐育等과 略同緯度이며 國境을 一貫하야흘으는鴨綠江을隔하야新義州와 相對峙하야 水陸交通의要衝에當하야잇는 貿易港이라하겟다 安東縣은 安東省의首都로서 南은 鴨綠江을隔하야朝鮮에對峙하고 東은寬甸縣에接하얏스며 西北은 鳳城縣에隣接하야잇다

氣候

大體三寒四溫의氣溫으로서 十一月下旬부터三月中旬까지를 結氷期라하야其間最低零下二十五六度에 低下하는事도 잇스나 大槪 奉天以北과如히 寒暑의差 甚하지 안흐며 氣溫이 가장 上昇하기는 八月인바 最高三十二度內外이나 九月以降은 急激히 低下하야 一月에 最低를 指示하야 地下凍結四尺五寸에 及하는時도잇다

農業

當地方은 山田連亘하야 耕地가比較的 少하고 農產物로서는 寬甸、輯安、臨江、其他上流諸縣에서 大豆、粟、玉蜀黍、高粱等雜穀의 產出이多하야 每年六七月頃에 船便으로 當地에 出廻되는것이 相當하며 又當地方에는 二三十年以來同胞의 손으로 開拓된水田이多함으로 下流地帶에 大水田地를 形成하고잇다 따라서 籾의 出廻가相當하며 衆하야近來滿洲人間에도 水田에 着眼하는바잇서서 將來水利事業의 獎勵指導를 善히行하면 益益開拓될이라고밋는다

一個年間의貿易高 一億海關兩을肉迫
朝鮮關係만廿九萬噸輸出入

明治四十四年 安奉線廣軌鐵道의 開通과 鴨綠江鐵橋의竣成에依하야 安東은日滿貿易의 要路로되는同時 大連、營口와아울려滿洲의 三港이라 稱함에至하얏다 貿易은 日本과의 關係漸增함을上海、芝罘와는漸減의 傾向을 示하고잇다 特히大戰後는歐米品이 一掃되고日本內地品의獨占市場으로化하는 一方 陸境關稅特典에依하야 貿易高는年年增加의一路를 指하는바 近年에는 九千八百萬海關兩을 超過하고잇다

現在安東對日本內地及 朝鮮貿易을 觀察하면 日本內地에 柞蠶絲 木材 豆粕 大豆等約一萬七千噸 朝鮮各地에 粟 木材 大豆 豆粕等約二十六萬噸이 輸出되고 日本內地로부터 綿絲布 食料 雜貨 機械等約三萬噸 朝鮮으로부터約三萬噸이 輸入되고잇다

戶數及人口

安東縣內鐵路에 居住하는 戶數와 人口는다음과갓다

戶數 三萬五千三百三十四戶
日本內地人 三千六百四十一戶
朝鮮人 三千一百七十一戶
滿洲人 二萬八千五百十一戶
外國人 十一戶
總人口 十八萬二千七百九十人
日本內地人 一萬五千五百八十六人
朝鮮人 一萬五千四百八十二人
滿洲人 十五萬一千六百七十七人
外國人 四十五人

鑛業

昭和十年(康德二年)八月一日勅令第八十五號로써 처음鑛業法이制定되엿다 따라서無秩序無統制에잇든 滿洲國鑛業도 玆에法的統制下에 服함에至하얏다 資源豊富한本省의 鑛業은 頗久히匪禍와 交通不便으로 因하야大槪 未開發그대로 放棄하얏든 感이 이섯스나 治安의 全治回復과同時其前途는 實로洋洋한바잇서鑛業의發展은 各方面에서 多大한期待를가지게되엿다 本省의鑛物은甚히 豊富하야 金、銀、銅、鉛鐵、石炭、及石綿의 埋藏量이甚多한바 石炭은 撫順炭에 匹敵할良質이며 鉛、石綿은 近代工業에必要不可缺한것으로서 其開發 [illegible] 優遇가엿다 今次鑛業法이制定되여 鑛業權者의 利益을法律로서 保護하게되엿 故로治安의 回復、交通의 發達와相俟하야 將來는 益益有望한鑛產資源이 開發될이라고信한다

教育

安東의初等教育施設其他各種의 教育事業은 年年旺盛發達하야 現在滿鐵會社에서 經營하는學校로서 小學校二 實業補習學校一 家政女學校一 高等女學校一 中學校一 幼稚園二 普通學校二 幼稚園 圖書館一

滿洲教育施設로는林科 高級中學校 商科高級中學校 男女師範學校를筆頭로 初等學校十五以上에 達한다고한다

奉仕的產業機關
安東縣朝鮮人民會經營의 唯一한授產場

本授產場은 當地朝鮮人民會經營에屬하는 安東의오직 하나인 獨特한 社會事業의 生產機關이다 施設의要旨는 管內貧民救濟更生 失業者救濟善導 勤勞精神涵養 副業獎勵指導의 目的으로서 昭和五年一月부터 市內南一條通三丁目에서 作業을 開始하얏다 初期는 制鞋 簾板 製造販賣等에잇섯스나 漸次救濟事業의 必要를늣긴바잇서서 木工部 業加工部 靴下製造部 人力車部職業紹介部、等의增設을 보게되엿다 現在는 各部에亘하야 大量的生產은 勿論 良好한 成績으로 發展의 一路를것고잇는바 需要大衆에게 實質的便宜를 圖하고잇다 特히靴下部는 大勢에鑑하야 今年五月부터 機械를 從後의倍數以上이나 增設하야 現代流行의最新的產品을 大量生產中이다 따라서 年產額은 十五萬圓을超過하며 一千五百坪敷地에 建設된場은 今日의盛況을 如實히말하고잇다 此는民會役員諸氏의 不斷의努力과 犧牲의結晶인바 아프로 더욱 光輝잇는 發展과目的의貢獻에 邁進을企待하야 마지안는다

一日平均生產高及一日平均使用職工人數(最近)

靴下部 六〇打 四〇名
業加工品 (糧 一五〇枚 / 雜 一五〇〇貫 / 延 二五〇〇枚) 五八名
木工品 五點 五名

社會團體

▲朝鮮人青年會 昭和八年一月二十一日에 修養을中心으로한 安東縣朝鮮人青年會는 當時會長姜齊煥氏의朝立으로 一般救濟事業 文化方面에 活躍한運動이잇섯스며 其後崔謹愚 會長으로同會는嚴然存在이엇스며지난九月十二日에臨時總會를열고 任員을總改選하얏는데 新進人物인金正連君을 會長으로 副會長姜齊煥君 總務鄭致珍氏를 마저 同會는旣然鼎足의活氣를띠고 健步할途程에서號令을 기다리고잇다

▲朝鮮少年會 朝鮮少年會 第三十一虎隊는 同青年會幼少年部의 部門運動으로 責任者李東燦君이 統率하야나아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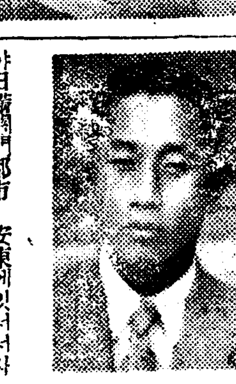
▲安東勞働組合 創立된지 十有年에初代組合長 同組合 氏其後 李載奎氏이다 二年前總務金道益氏가 復興시기여 同組合事務室이며 勞働宿泊所等 施設에對하야 面目一新하고잇다

▲朝鮮人婦人會 六年前會長 黃基性氏가 創立시겨 會員八十餘名을 指導하다가 同氏가 奉天으로移轉 現會長은 金福寶氏이다

▲不二門 門主金福氏의 創立으로 唯一한 修養團體이다

고무業界의覇者 永昌膠皮工廠
前途가實로洋洋하다

滿洲의權威 安東의 最高的雄姿를 占領하고잇는 市內上六道溝山一條通 九丁目永昌膠皮工廠은 昭和七年 八月부터 創立되엿는데 資本金 二十萬圓、職工五百餘名 職員十五名에 達한다고한다 그런데 生產數量은 一日平均 五千足乃至 六千足年產一百三十萬足이며 生產額은 一日平均 二千餘圓 年額六十萬圓을超過한다고한다 敷地三千有餘坪中千餘坪에 建設된 煉瓦製의大工廠은 斯界의 羨望을 集中하고잇다 經營主는 崔晶煥、李根成 兩氏인데 崔晶煥氏는當年五十歲의中年을넘든 斯界重鎭으로 自他가 公認하는 大實業家이다 平壤出生으로 일직이 露西亞에서 約十年間 海外生活을 하다가大正八年度에 歸國하야 布木商及고무事業에 從事타가 滿洲의經濟的大勢를 觀察한後 日滿經濟提携의 促進과 發展을 目的하는同時 產業의 合理化를 爲하야日滿關門都市 安東에잇서서자랑할만한 大衆的 生產機關을設置한바이다 性品이 謙才仁慈하야 多數한使用人의 愛護는勿論 一般社會의模範的人物이다 李根成氏는 平壤出生으로 四十四歲에 斯界十數年間 經驗이 [illegible] 中을率業하고 偉大한指導下에서 [illegible] 先進의나라 米國으로渡하야 約七年間 多方面으로 活動하다가 [illegible] 歸國한後 고무業界로 進出 [illegible] 快活自重하고 事業에 精進하야 社會的信望이 一層赫赫하다 (寫眞—左崔晶煥、右李根成兩氏及工廠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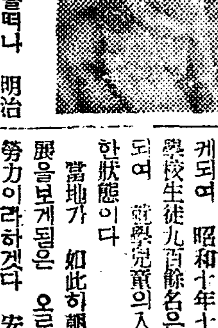
宗教界代表機關 安東第一教會
一千四百餘教人을抱擁

當地長老教第一教會는 只今으로부터 二十四年前一九一二年에 創立되엿다 當時에는 朝鮮人居住者도稀少하얏고 宗教에對한認識도적은 關係上不過幾人으로始作되엿는데 其後教運이 漸漸隆盛함을따라 一九二二年에는 市內七番通八丁目에 煉瓦禮拜堂을 建設하얏다 以後로는 더욱信者의 增加를보게되여 一九三三年에至하야는 市內六番通三丁目에 三三〇坪基地에 二二〇坪의 二層煉瓦現存禮拜堂을 名實共히雄壯하게建設하얏는바 長久한歷史와 아울러 今日의 一千四百餘名의教人을算하고잇는 全滿의代表的敎會이다 如此한發展實現에는 敎職에在한 諸氏의 敎厚한指導와 熱烈한教化에因함은勿論나아가서는敎人諸氏의宗敎的說誠이 向上되여잇다고하겟다 第一敎會姉妹機關으로 中央敎會 六道溝敎會가잇는데 中央敎會는 敎人이七百餘名이고 六道溝敎會는五百餘名이라고한다 安東의宗敎界는 實로 前途洋洋하다。(寫眞은第一敎會全景)

各界의重鎭들

實業界의元老
海東公司 張景淳氏

安東縣實業界의 元老요 宗教界의 重鎭인 海東公司主張景淳氏는 平北義州出生으로 昭和元年에 來安하야 精米業界로 進出하엿다 元來寬大愼重하고 衆度에 斯界獨特한 敏腕의所持主로서 初志를 善히一貫한바잇서 今日의社會的信望과 經濟的地位를 確保함에至하엿다 그리고 氏는 當地第一教會長老의要職에 處하야잇는바 一般教人의信任과 敬慕는勿論 全家族的으로 信仰에敎厚함은 一般社會의 必然的模範할바라하겟다 氏는土地開拓事業에도 留意하야 安東下流地帶에 農場을 經營하는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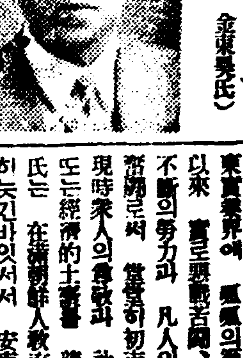
安東省公署 崔謹愚 氏

安東縣의 巨星이오 花形인氏는 京城出生으로 當年四十歲의 官界將又社會活舞臺의 拔萃的人物이다 일즉이鄕山을떠나 明治四十五年에 渡東하야 中學을거처 東京高等商業學校를 大正八年에 卒業한後 一意研究하얏다가 [illegible] 늣긴바잇서 國際都市上海로進出하얏다가 其後先進 物質文明의 배울것는 歐洲各國을歷訪 約十年間國際舞臺에 立脚하야 西洋의 文物을研究하며 우리同胞의 前途開拓을爲하야 人不知의 努力을傾注하얏다 昭和五年에來安하야 安東社會의 先進指導者로서 芳名을遺憾없이 發揮하야 今日에 達하고잇다 昨年滿洲國政府에 依하야 安東省公署民政廳에 勤務中이다 ◇寫眞은 崔謹愚氏

◇…寫眞은海東公司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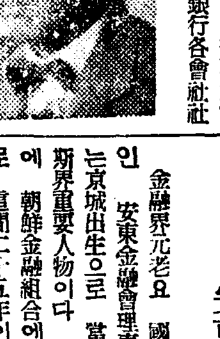
產業界의新進
滿鮮土地改良會社 金東昊 氏

氏는平北龍川出生으로 昭和八年三月 [illegible] 卒業하고 同年八月 [illegible] 就任하야 敏腕을發揮하고잇섯다 昭和九年九月에 來安하야 [illegible] 事業公司設立을 [illegible] 現在五十萬圓으로 創立되는 滿鮮土地改良株式會社發起人會代表兼株式會社丹陽水利公司顧問의 要職에處하야잇스며 新京方面에도 約二百餘町步의 土地를所有하고잇다 氏는 아프로 土地開拓事業과 社會事業에 邁進하리라한다 (寫眞은 金東昊氏)



社會事業의恩人
朝鮮人民會長 金虎贊 氏

元新興學校長 現滿鐵地方委員 商工會議所會議員 朝鮮人民會長 金虎贊氏는 平北義州出生으로當年五十四歲의 社會奉仕的大人物이다 靑年時代에는 木財界에進出하야 敏腕과아울러 奮心勉勵한바잇서서 巨萬의富를 致하야 大正八九年頃에는 實로四百萬圓의巨財에達하얏스나 其後財界不況으로因하야 大部分을損失하고 現在는 四五萬圓의 中產階級에不過한다 大正九年度부터 財界로進出하야 當地協成銀行設立을筆頭로 平壤新義州에亘하야 大會社創立等 一一히枚擧키不能하다 前後十有年間 銀行各會社社長重役으로 歷任한後 昭和六年에至하야 當地朝鮮人教育問題에 一大關心을가진 氏는 新興學院이 悲運에陷함을 痛感하여이여 當地一般人士의 支持와 莫大한私財를提供하야 同學院을건지는同時 新興學校로認可를 受하야 同校初代校長兼 經營主로 就任되엿다 其後 氏의教育熱에感動된 滿鐵에서는 昭和普通學校를 實現케되여 昭和十年十一月에 新興學校生徒九百餘名은 同校에編入되여 鮮滿兒童의入學難은 殆無한狀態이다 當地가 如此히朝鮮人教育의發展을보게된은 오로지氏의犧牲的努力이라하겟다 安東의朝鮮人中等教育機關이업슴을 절실히늣긴바잇서 現在安東商業學校設立期成會長으로 猛活動을繼續中인바 氏의熱烈한敎育熱에 一般은感激하고잇다 氏는當地某銀行本店에서 一萬八千五百圓을借入하야 昭和八年에 學校敎員諸氏를爲하야 住宅을建築하얏는바 敎員全部가 該住宅에居住하게하고 家賃을每一人當十圓(現價廿五圓)式으로 滿鐵當局에極力交涉하야 該家賃全部를 滿鐵에서 朝鮮人民會로支拂케하얏다 다시 [illegible] 入學 [illegible] 交涉中인바 明年에는實現되리라고한다 ◇寫眞은 金虎贊氏



精米業界慧星
韓興精米所 金得珠 氏

氏는 平北鐵山出生으로 當年三十二歲의 模範的實業家이다 安東實業界에 巫氣의第一聲을擧한以來 實로 艱難苦鬪、七顚八起의 不斷의努力과 凡人의追從치못할 奮鬪로써 堂堂히初志를貫徹하야 現時衆人의尊敬과 社會의信望、또는經濟的土臺를 確保하얏다。氏는 在滿朝鮮人教育問題에 깁히늣긴바잇서서 安東縣五龍背普明學校基金募集에 率先努力한結果 同校는 去七月十二日開校式을擧行하는同時初代校長으로 功勞者金得珠氏를 推戴하얏다 當地朝鮮人民會評議員 金融會評議員의要職에處하야 在安同胞의文化 產業向上等에 深甚한努力을 不惜하며 安東社會成功의第一人者로서 一般後進에模範할바가多大하다 ◇寫眞은金得珠氏

金融界의重鎭
安東金融會理事 鄭雲龍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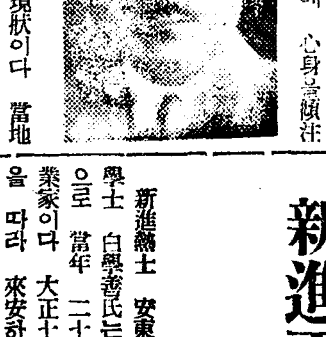
金融界元老요 國境安東의重寶인 安東金融會理事 鄭雲龍氏는京城出生으로 當年四十五歲의 斯界重要人物이다 明治四十五年에 朝鮮金融組合에奉職을 始初로 這間二十五年이라는 長久한時日을 滿鮮金融界를爲하야 奮心努力하얏다 大正七年頃朝鮮人의初代理事로서 就任되여 黃海道兼二浦、漏川、市邊里、間島金融部等各地理事를歷任하야 昭和九年에 安東金融會로 轉勤되엿다 來安以來 三千八百餘人의會員을 善히 統率指導하며 會員의福利增進과 農村開發에 心身을傾注하야 寧日이업는現狀이다 當地金融會의 今日의大發展를보게된은 오로지 氏와가튼 斯界唯一한權威家를 마지함에잇다 氏는 在滿同胞를爲하야 益益金融의普及을 圖하리라한다 (寫眞은 鄭雲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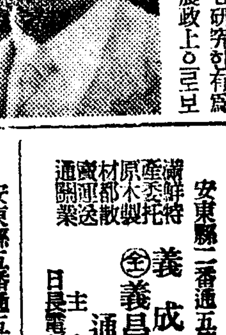
杏林界의權威
大同醫院長 金命燁 氏

氏는新義州出生으로 當年三十二歲의 斯界重鎭이다 昭和六年 奉天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곳 奉天日本赤十字社病院에 奉職하야 實踐的研究에 一層努力다가 昭和九年度에 來安하야 市內官電街에서 前記醫院을 開設하얏다 氏는 崇高한公益心의 所持者이며 慈善事業에 大關心을가진有爲의 人物이다 經濟的으로본다면 私的負擔이만흔 立場에處하야 잇스나 一般社會를 爲하야 共存共榮의 道를圖하며 理解가豊富하야 萬人의好感을 受하고 다 如此히 公德心이 富하고 理解性에 長한氏는 醫師로서社會人으로서 一般市民의 絕對한 歡迎과 人望을끌고잇다 溫恭篤實하고 親切無比하야 一般患者는 爭先押來라고한다 (寫眞은 金命燁 氏)

兩界英材
貿易運輸 大成號主 金志洛氏

氏는 平北義州郡古寧朔面一寧滿出生으로 當年三十四年의 敏腕家이다 大正八年에 義州培新學校를卒業한後 그이듬해 三月 [illegible] 方面으로進出하야 昭和元年에 滿洲撫順에서 米穀商 裕豊號經營에서 [illegible] 奉天 [illegible] 公司等을 經營하다가 昭和八年에 來安하야 運送業金安公司를 經營하든바 [illegible] 月부터 當地六番通八丁目三番地에서 貿易과運送을主로한 大成號를 新設하얏는데 諸般設備와 아울러 斯界의 信望은 自他가 是認하는바요 따라서 將來의 發展을 企待하는바 多大하다 (寫眞은 金志洛氏)





官界重望의的
安東省公署技佐 金昌燮 氏

氏는 平南安州出生으로 當年四十歲의斯界先進이다 大正八年 盛岡高等農林學校를卒業한後 곳 教育界로進出하야 京城儆新教學校 協成學校 安州公立農業學校等에서 前後七年間教鞭을잡다가 大正十四年에 朝鮮總督府農林局林業課로轉職되여 昭和九年에至하기까지 十有餘年間半島農林界를爲하야 無限히 勞力하야오든바 昭和九年十二月滿洲國의 要請에依하야 半島林業行政에幾多의 功績을기치고 安東省公署農務科技佐(高等官)로서 就任함에至하얏다 農林學을專工하얏고 兼하야 實踐的으로 斯界第一線에 直面하야 十餘星霜을盡心研究한有爲의 材인만치 本省農政上으로보아 一大應價인同時 우리同胞의 滿洲農村移住가 日復月增하는現狀에鑑하야 氏의存在는 益益敬慕의感이甚多하다 ◇寫眞은 金昌燮氏

新進工業家의
安東兄弟鐵工所 工學士 白學善氏

新進熱士 安東兄弟鐵工所主工學士 白學善氏는 平南安州出生으로 當年 二十五歲의 青年工業家이다 大正十五年度에 父親을 따라 來安하야 安東中學校를 優秀한 成績으로畢하고 大連工業專門學校에 滿鐵社費生으로 入學되여 昨年三月에 實로得하기難한 第二位의 卓越한天才的成績으로 同校機械科를 卒業하얏다 따라 多方面에서 奉職의 要請을 受한바 잇섯스나學生時代부터 自立的으로 工業界에 獻身勇進할 決心이엿슴으로 實踐的研究를 거듭하기 爲하야 當地 宮崎鐵工所에 入所 滿一年間 實驗에 全力을 傾注다가 本意를實現하기爲하야 安東縣一番通三丁目二番地에 敷地一百五十餘坪을買入하야 這間工場建築及內容設備等에힘쓰고잇섯는바 去七月一日부터 開業하얏다 國境地帶安東에잇서서朝鮮人經營으로 唯一한 獨步的地位를占領하고잇슴으로 同氏의鐵工所뿐이다 氏는 매우 溫柔篤學하야將來事業成就의 衆望을 一身에集中하고잇다 業務는 陸舶用輕油、重油、發動機各種、農機、揚水機、鑛山用揭機、等製作及工場設計措付請負等이라한다

安東金融會
會長 리忠根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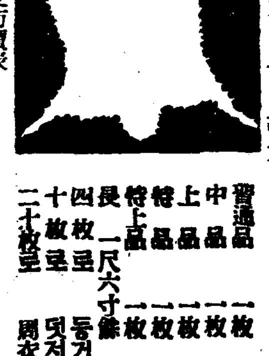
氏는 平北龍川出生으로 當地金融會長의 要職에處하여잇는財界重要人物이다

謹告

安東縣은 滿洲國初入關門이오 朝鮮과 가장 接近地인關係上 우리同胞의 발(足)자최의 歷史가 旣久인지라 잘살거나 못살거나 南滿洲一帶에 居住하는 우리同胞치고 直으로 間으로 安東縣에서 터지내칠곳이업스리라고 斷言한다면 이곳에잇는 言論機關이 同胞의 生活事情을 한번도 紹介해본바업는것이 얼마나 羞恥이며 遺憾인가! 이에 늣긴바잇서 이미 計劃한바오래엿스나 여러가지 關係로 有意未遂이다가 今日에야 바로소 多年間宿題를 解決코저한것이 또한 好事多魔로 着手한지 不過幾日에 意外로 南朝鮮未曾有의 大風水害가 報道되여 爲先 其救濟策으로 因하야 進退兩難에서 各界를 總網羅치못한것이 一大遺憾으로 다시後期를 기다리면서 在安同胞의 健康과 奮鬪를 伏祝하는바이다

安東縣支局長 姜齊煥

防寒羊皮는安東縣이集散地다其價格이第一安價인同時에安心注文處는歷史오랜國際洋行뿐



羊皮用途 周衣감 덧조고리감 背子감 등거리감

朝鮮間小羊皮市價表
普通品 一枚 九十錢
中品 一枚 一圓二十錢
上品 一枚 一圓五十錢
特品 一枚 一圓八十錢
特上品 一枚 二圓二十錢
長 一尺六寸餘 廣 一尺餘
四枚로 등거리 一件分
十枚로 덧저고리 一件分
二十枚로 周衣 一件分

老大羊皮市價表
上品一枚二圓半、特品二圓八十錢、特上品一枚三圓、長二尺五寸以上、廣二尺五寸以上 六枚로周衣一件分、二枚로덧조고리一件分 一枚로背子及등거리一件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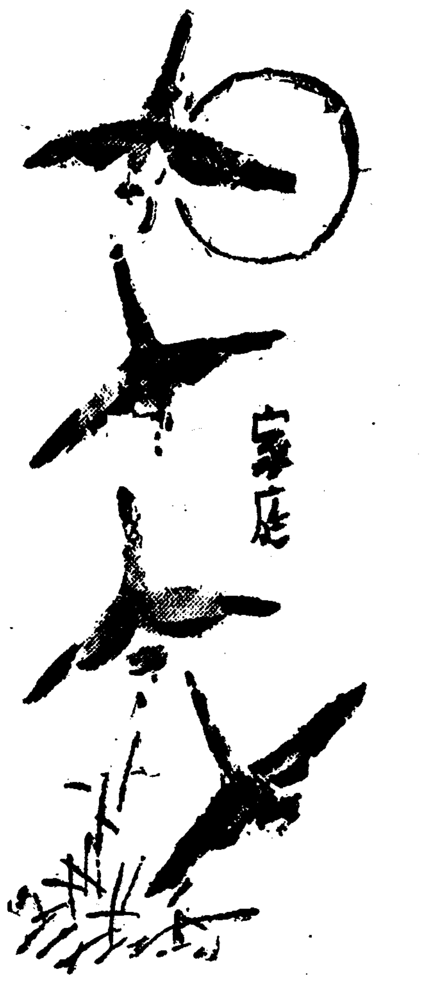
其他羊皮製衣
등거리、덧저고리、여호목도리、羊皮外套、オバエリ毛皮製各種帽子等 [illegible]

各種毛皮 原產地直輸入 製衣加工
安東縣舊市街入口西端 國際洋行毛皮部 電話九二三番 振替京城二〇八〇二番

安東縣六番通八丁目三番地 大成號 主 金志洛 電話長六八二番
安東縣南二條通三丁目七番地 春濤精米所 電話一四二番
安東縣五番通九丁目四番地 北龍商店 主 金觀奎
安東縣三番通七丁目三番地 朝鮮料理 七星館 朝鮮料理 御春館 主 吳永實
安東縣六番通八丁目四番地 金志善
安東縣客棧同業會事務所 正會長 孫福亭 副會長 吳廸之 所長 葛聖三
安東縣銀行共同實業處代理店 德存旅館 經理 都子範 滿電話三六八番
安東縣銀行共同實業處代理店 安東永安街豐順棧 經理 孫福亭 滿電話三九一番
安東縣二番通五丁目二 義成商會 義昌運送通關部 主 金炳浩 日長電話一二三番
安東縣五番通五丁目 日昇公司 主 金聖瑞 電話長一〇四九番
安東縣大和橋通九丁目 正紀公司 主 金東周
安東縣二番通二丁目 共和精米所
安東縣二番通四丁目 高輪商會 主 高有權
安東縣新柳街十五號 法律顧問社 金一斗
安東大正普通學校 職員一同
安東縣二番通六丁目 朝鮮料理 日星館 主 韓植
安東縣一番通五丁目 穀物貿易 委托販賣 精白米商 和成商會 主 韓鳳濬

安東縣鎭江街 大生東大藥店 分局電話四六〇番
安東縣北通八丁目 韓興精米所 電話一、二三六番
安東縣六番通八丁目 義成號 主 金元兌 電話一一二七番
安東縣財神廟街 老天祥大藥房 分局電話四八一番
朝鮮銀行安東支店 韓明稷
安東縣一番通五丁目 朝鮮飲食店 京城館 主 金允洪
安東縣中央教會 牧師 金世鎬
安東縣六番通八丁目 崔忠元
安東縣市場通八丁目 金顯國
安東縣三番通六丁目 金安公司 金淳傑
安東縣一番通三丁目 多昌精米所
安東縣金湯街 同心堂醫藥房 漢醫 安東漢醫會長 劉祝三
安東縣前聚寶街 福興堂藥行 經理 孫雲亭 滿電話四六六番
安東縣興隆街 金生堂寶記 漢醫 張洛善
安東縣五柳街 中西醫院 院長 醫學士 聞道善
安東縣金湯街 廣生堂醫院 院長 金最玉
安東縣市場通六丁目 原田市松
安東縣官電街 李相綠
安東縣後聚寶街 安東醫院 院長 陳祐
安東縣官電街 錦育堂 漢醫 李子厚
安東縣堀割南通八丁目二 三和精米所 主 金志寶

安東縣四番通八丁目 文林館
安東縣四番通八丁目 兄弟商店
安東縣六番通八丁目 金明館
安東縣二番通四丁目 高信精米所 電話長三八五番
安東縣市場通九丁目 三和綢緞株式會社 安東出張所
安東縣三番通五丁目 [illegible]
安東縣四番通九丁目 中央寫眞館 電話一三六四番
安東縣財神廟街 天祥益藥房 漢醫 王中和
安東縣前街 貞元藥房 漢醫 孔子貞
安東縣廣濟街 滿洲醫院 院長 王選洲
安東縣六番通八丁目 義州麵店 電話分局二六五番
安東縣市場通八丁目 利和時計店 主 李東秀
安東縣三番通八丁目 兌彰藥局 漢醫 安衛遠
安東縣市場通 無名氏
安東縣二番通六丁目 朝鮮料理 一榮館 主 白桂香
安東縣二番通六丁目 朝鮮料理 東明館 主 吳鳳基
安東縣 尹景華
安東縣七番通七丁目 黃貴浩
安東縣三番通六丁目 朝日旅館 電話二一九八番
安東縣四番通八丁目 安伯欽
安東縣四番通九丁目 同仁堂藥房 漢醫 劉子餘
安東縣二番通三丁目 高級紳士洋服調進 中央洋服店 主 鄭顯恒
安東縣興隆街 大源藥房



우유로 소화불량 그건 잘못 먹는탓

식전보담 식후●신것과는 비각 특이한 체질은 또문제

흔히 우유를 먹고서 소화불량(消化不良)이 일어나게 된다고들 하는데 실상 우유란 아조 소화가 잘 되는 것이니 이백그람쯤의 우유는 겨우 두시간쯤이면 고만 소화되어버리고 더구나 유방(乳房)은 전부가 소화되야 버린답니다. 이 보담 더 잘 소화가 되게 하자면 먹을 때 쪽드리키지 말고서 조금씩 입속에 너허서 침을 고루 석겨 넘길것입니다. 그러나 공복에 먹어서는 위(胃)에 들어간뒤 엉키어 덩어리가 되기때문으로 흔히 소화불량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안습니다. 또 산(酸)이든 음식물과 함께 먹어도 역시 소화불량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도 먹는 법이 잇습니다. 그걸 모르고 먹어서는 안됩니다.

제일조흔우유를 어느때 먹는것이 제일 조흐냐고한다면 식전보다도 식후입니다. 식전에 먹으면 위에 가득하게 되기어 잇서서 정말 조석은 맛도 업거니와 또 아까 말한바와가치 소화에도 해롭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우유를 의례히 식전에 먹을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밥먹는 중간도 차라리 식전보담은 나코 식후는 더욱이 말할 것업시 조흐니다. 통채로 우유를 어떠케 먹어야 조흐냐고 한다면 신것과가치는 한께 먹지 말아야 한니다. [illegible]

까 말한바와가치 소화에해롭습니다. 특별히 젓먹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유를 먹을때는 신것을 피하시는것이 절대로 조흔니다.

×

특이한 체질(體質)을 가진 분들은 그러지 안하도 우유를 먹고서 설사를 하기도 하고 배스속이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먹을때 우유한흡에 대하야 석회수(石灰水)를 이십그람이나 폐소난라-프를 조금쯤 타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케 해서 먹으면 아모 탈도 나지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산증(無酸症)이라든지 위아토니증 이라든지 그런 병을가지

머리기름종류는 집안에서 맨들어 쓰자

고급「포마드」맨드는법

머리에 바르는「포마-드」는 밧듯이 사서쓰는것만으로 아라서는 안됩니다. 남자용은 물론 여자들이 쓰는 고급식물성포마-도 만드는 법을 알으켜드리겟습니다. 필요한 기구는 양자기와 재료를 석글 젓가락두개만으로 충분합니다. 재료는 포마-드의 주성분인 피마자기름에 기름의십분지일량의 백납(白蠟)과 목랍(?)을 준비하고 포마-도향료(香料)를조금 준비해둡니다. 『크로필』은귀 후비개로 두석이면족하니 이 분량으로 약방에서사면 불과[illegible] 포마-도향료도 [illegible] 일전어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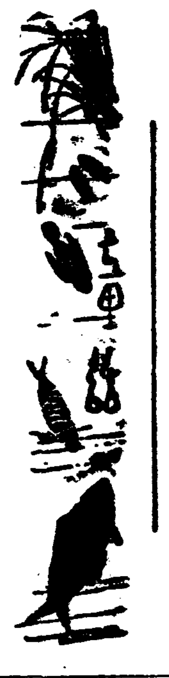
하는 팔지안홍으로 아조오뤅 십전어치면 넉넉합니다. 준비가 다되엿스면 만들기시작하지요. 위선 양재기남비에 피마자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백납을 기름의십분지일가량의 량으로 섞거서 백납이 잘푸러지도록 젓가락으로 개면서숫불에 데웁니다. 백납이 모다 풀어지거든 남비를 불에서 내려놧시립니다. 그러나 너무 식으면 단단해질 염려가 잇스니 주의[illegible] 포마-도향료를 섞거 [illegible] 젓가락[illegible] 바[illegible] 니다.

예정량을 한거번에 너치말고 젓가락긋흐로 조금식 못처서 너코칙후에 향료를 여러방울 떠려드립니다. 피마자기름은 머리털을부드럽게하고 빼납은 기름을진득진득하게하는 것입니다.

재료는 큰약방이나 화장품상점에서는 어느때든지 [illegible] 포마-도향료와 [illegible] 강은 [illegible] 포마-도를 만들수잇고 [illegible] 안입니다.

왕자와거지

⑤　마-크·토웰 作　崔秉和 譯



「그곳에 가면 살길이잇겟지. 그애진사람이 나를때리고 때리고가서 이애는 내아들이고 왕자님이십니다하고 종거인(證據人)이되여주겟지. 그러면 또 전과거리를모양이다. 늙고 중얼거리엿습니다. 그러자 악가 유아원아이들의 고약한 것을 생각하고는 이러케 혼자중얼거리엿습니다.

「응-네가 내가 임금님이되면그애들에게 그저밥과 집만줄것이아니라 책을 읽혀공부를시켜야하겟다. 참말그애들은 아모것도몰르고 사람을도와줄줄은 몰르는데 그저배만 곱흐지 안케해서는 아모쓸데가업다. 어것을 잘생각하야두고 오늘당한일을 이저버려서는 안된다. 학문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읍게만들고 동정잇는 사람이 되게한다 ……」

언제인가, 근처에는 불비치 반작거리기시작하고 비가오시엿습니다. 그위에 바람까지사납게부는 밤이되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집업는 왕자는 지저분한 구차한동리를 오른쪽으로 꺼끼고 왼쪽으로 꾸부러저가며 이골목저골목 헤매엇습니다. 동리를 오른쪽으로꺼기고 왼쪽으로 꾸부러저가며 이골목저골목헤매엿습니다.

바로그때 갑작이 술주정꾼의 커다란소리 아플딱-하아스자마자 멱자곳차로 왕자의몸쌀드를 꼭-눌러잡어 만엿습니다.

「응-네가 그애아버지냐. 참잘맛낫다.-자 나를 꼭 붙어서 그애와 바구워다구」왕자는 열심히말하엿스나 그술주정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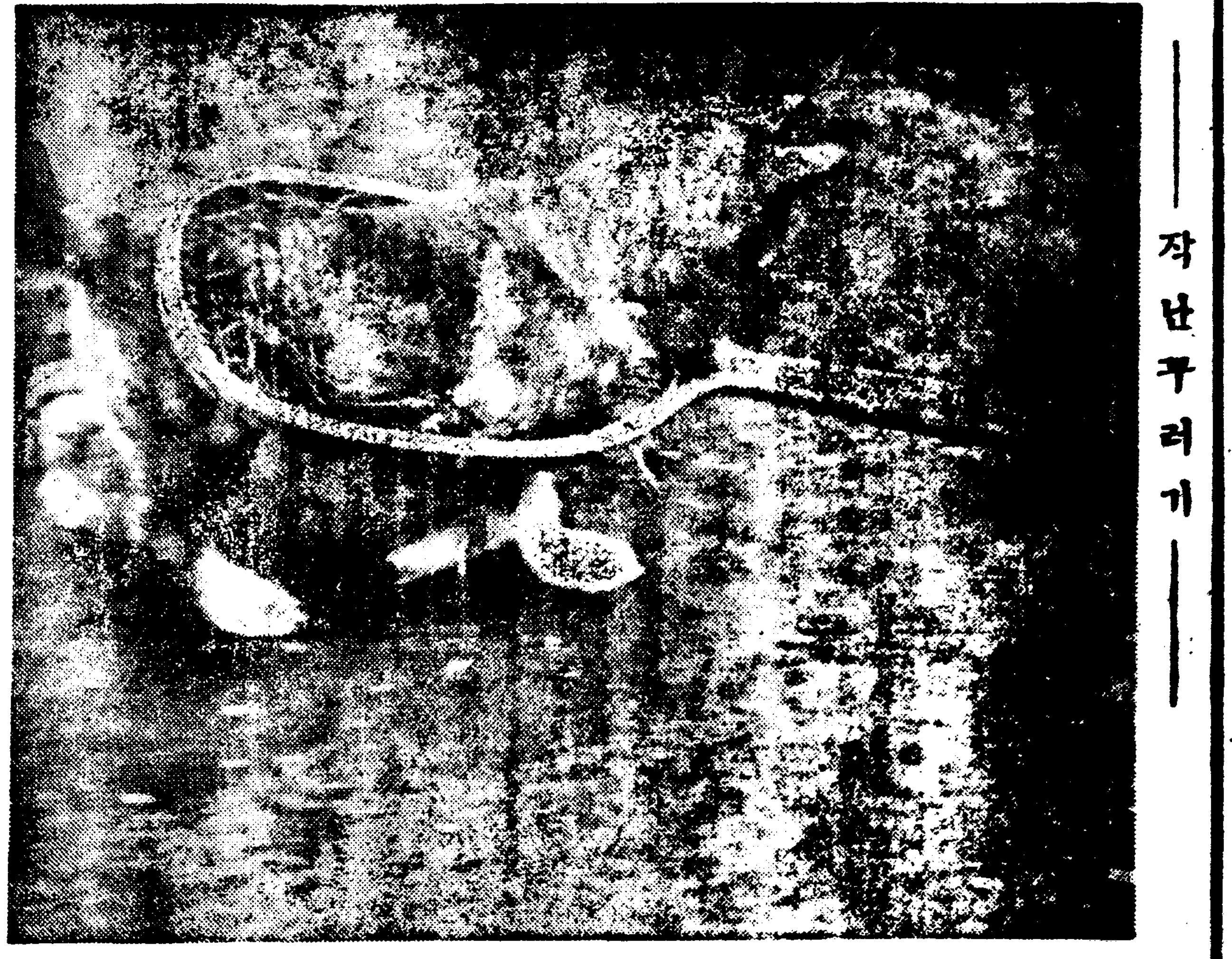
「그애아버지? 너무순소리를하고잇니, 이자식아!네애비를이저버렷니, 내가네애비다」

「그런농담할때가아니다. 나는왕자로구나. 찡칭칭일에 상처투성이다. 제발나를 임금님께로 데려다다구.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너를 꿈도꾸지못할 큰부자가되게하여줄것이다. 거짓말이아니다. 내가말하는것은 모다 정말이니깐 나를구하야다구. 나는정말황태자다.」

술주정꾼은 고만기가막혀서 눈을 둥글가티 뜨고서 왕자의얼굴을 한참드려다보드니 얼마잇다가 고개를업 호로호들면서

「이자식이 별안간 미첫나보다.」하고 또 목줄띠를획 잡드니 껄껄껄 우섯습니다

「이자식아! 잔말말고가자. 나하고 너이할미하고서 너를버릇을 톡톡이 가르켜주어야하겟다」그술주정꾼은이런케말하면서 왕자를[illegible]



귀동냥

전기다리머를 경제되게 쓰는법

전긔아이론을 쓸때는 처음부터 다쓸때까지 곳꺼지 전긔를 통하게하는것은 큰손실입니다.

이것을 모르엇게 쓰면 사실 얼마안돌 전긔를 세루르게쓰는 동안에 전긔메레는 작고 도라가고 전긔갑은 떠해집니다 잘 쓰면 꼭가튼 능률을 올리고도 실상 전긔료금은 반절바게안들니다 쓸때는 처음부터 어룽가리식으로아이론에다가 전긔코-드를 꼬지말고 그냥보통다리미뜨스듯이 불에좀여서 데웁게한다음 전긔코-드를 꼬으십시요

다음에 가열을 묘하게하는것을 이저서는 안됩니다 다림질할것이 만흘때에는 어지간히 데워지거든 맨먼저 엷은옷부터 다림질을 하여서 열이 높아짐을 따라서 두터운옷을 다리고 다음으로 전긔코-드를 뗀다음 남아잇는 열로 엷은의복을 다리도록하는것이 가장 경제되는것입니다

[illegible] 아조[illegible] 잇[illegible] 고[illegible] 이요 어떤 더구나 애기네 이것은 [illegible] 먹이 [illegible]

[illegible] 아조조 [illegible] 아이들의 [illegible] 어다가는 [illegible] 자리게 되기쉽습니다. 그래니까 우유로 키우는애기네 [illegible] 부어가는 철분이 만을 다든 채소나 채소즙을 불해서 먹이지 [illegible] 안을 것입니다.

姓女씨 (一)

유-모어小說

金熊超 作畵

屋上風景 (1)

바다 한복판에 떠잇는 헐몽모한(?)(航空母艦)은수는 되겟습니다. ——

이도시안에 이만치 높은집도 드물지, 그전에 「안나」가 살든 제칠천국(第七天國)보다 두청이나 낫건만 철근콩크리-트 오십육척이 떠밧는바람에 종일가야용달지는볕이업고 일광입(日陽入)이 책력에적힌 그시간대로제깨드리맛게 되어잇습니다.

푸르다 맑다 저하늘! 우러러보면 모두가이것뿐입니다. 풍산호로 몽구멍을 가실때 와 [illegible] 저세로 들렝가를 허버지들은 왜 월급쟁이만 나어[illegible]

어쩌면 저-만 것입니다. 이집꼭대기에서 구버보면 그럴은 큰헤길도 골작구니로보입니다. 거기에 지향업시들고나가는 조류(潮流)! 이물결속하라고 부유하는 물고기를! 오전아홉시, 오후다네시, 두때의만조시(滿潮時)가닥치면 사람기(產卵期)여분업시 정어리떼가 몰립니다.

하——! (아-!보다 더구슬픈탄식입니다)이만흔고기떼, 아니 이만흔 월급쟁이를! 요전날 아버지들은 리조판서 병조판서…… 누구들은요 햇다든지 요근래 아버지들은 왜 월급쟁이만 나어

로들리며 건너다보다면 지나가는 려객기(旅客機)도편쟁이로보이는 드노픈 곳이라『요단』강 건너『에덴』으로통한길이 과히 머지안흘것도갓습니다. 그러나이 저서는안됩니다. 이집을 짓고얼마안되어서 사창실상호실 여사무원하나는 이곳에서 연애를하고 이곳에서 실련을하고,이곳에서자살를결의햇지만 저하늘까지『애드,발룬!』모양으로 곳장 오르지못하고 이쪽대기에서 길바닥으로 따이핑을해서,파라케피어오르든 가로수그늘 페이브우에 머리를 드려밧고나서 비로소 승천하엿습니다.그런즉 병원으로 떠메고 갓슬때는 꺼플만남엇지 정작속깁은 다빠저부동지세가 되엇드랍니다. 그래서 그당시 이빌딩안 천구들은『고든길을두고 왜 돌런갈까!』하고 핀잔 비저시 말햇지만

「이런건 저런건중엄」도 일종의 노력이요 수속이 걸리는것인데 그노력 그수속이 업시 방망이질할수야잇겟습니까?

그러고보니 불수록 저하늘이 티노파보힙니다. 뉴-욕의『엠파-아빌딩』은 노코보면 코노픈사람이 노즌집을 잘지는는모양인데 이건물의소유자 구씨는발뒤꿈치를 비어 꽁에부치고 이집을 엷두층을 올리셔도 하늘은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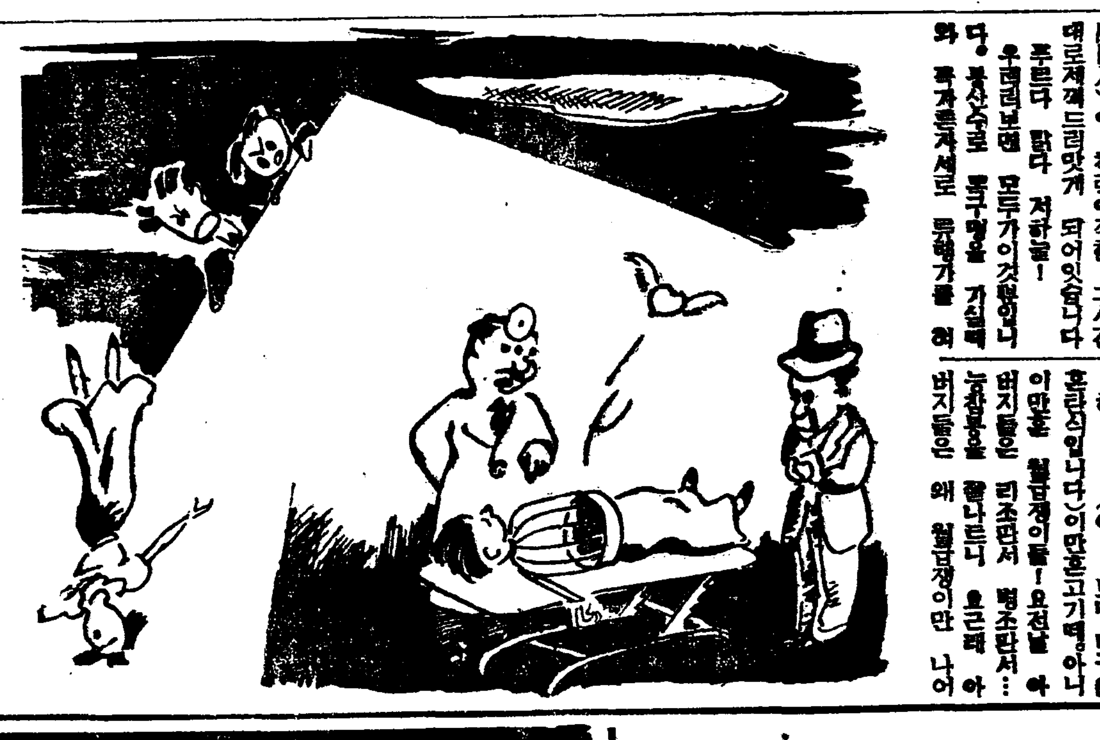
노핫습니까 그러길래 이런집을 작구짓는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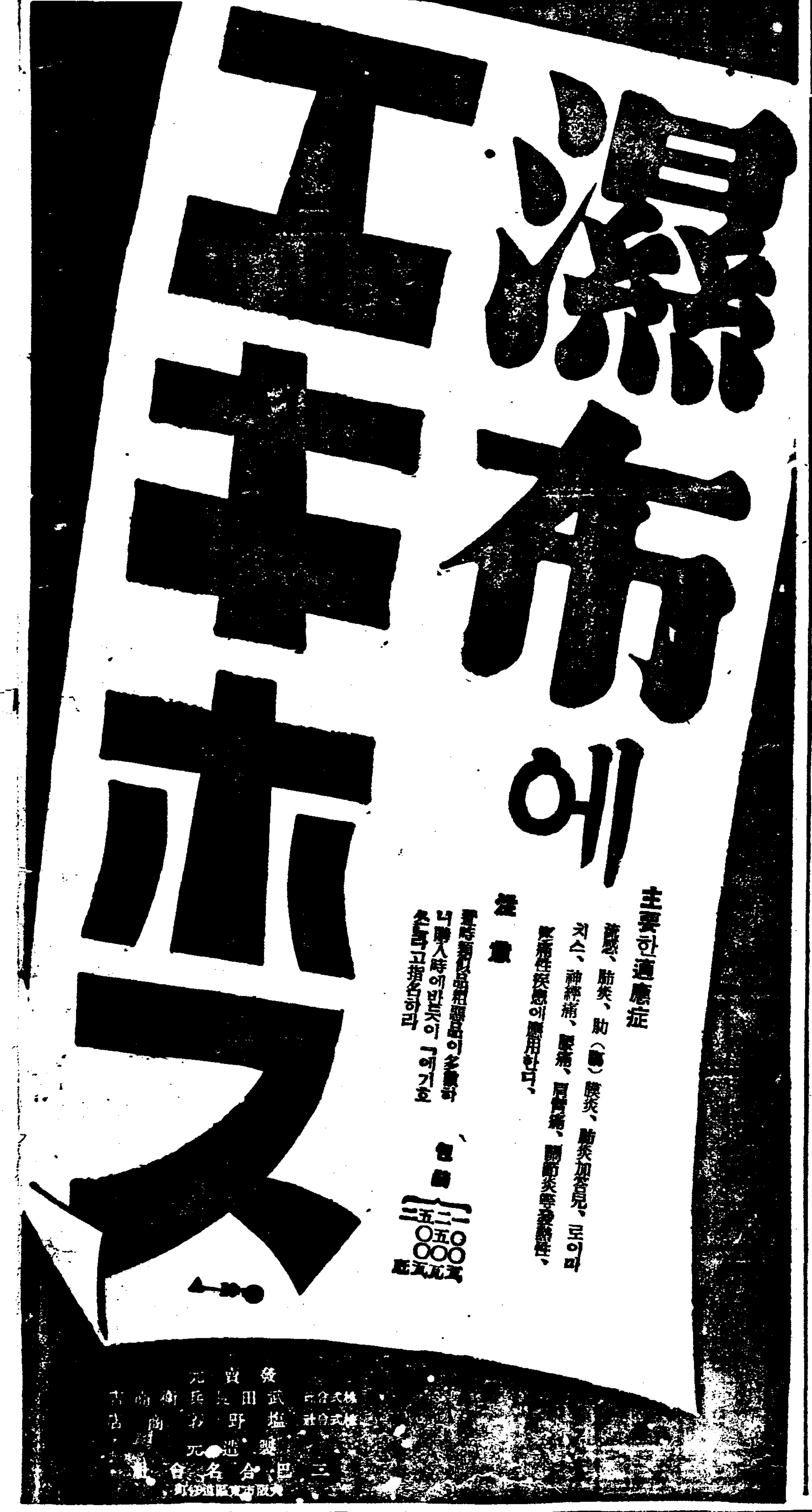
백미돌 저쪽에서 자동차가몰려들고 이십미돌 이쪽에서 전차가 달려드려도 유유자적한이도시의인간들! 개화장을팔에걸고 허버지를 극저거리면서 십팔간넓은큰물을 건너질르면서도 이마빽이 부웃거나 정갱이가 터질괴회를흡처럼 주지안습니다. 빠른놈은 빠른대로 느린놈은 느린대로, 좌측통행을 우측통행해서라도 제각기『따이야』를 마처갑니다 교통순사가 이자리에서 내려본다면 억개가들먹할일이 만케지요. 그러나 인생보도 만그런것이 아니라 인생 행로도 이런가봐요. 우칙통행은 그만두고 회호리바람처럼 땅바닥을맴돌며 다녀도 사고만안내면 그뿐이라니까요 사귀여보십시요

오늘도 쾌청입니다 이구가비루(長家樓?)의 옥상.

양지쪽을차자 물바그로 기어나온 남생이들처럼 이칭흥업회사원 한패가 남쪽자리를차지하고 전심후 제일미로 파란연기를 올리고잇습니다.

말에드려서는 언제나 외장격인보군 「[illegible] 부르나잇?」





株式會社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番

頭痛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 갈려지는것거티 몹시 아플때!!
●바눌로 쑤서는것거티 끔치가 아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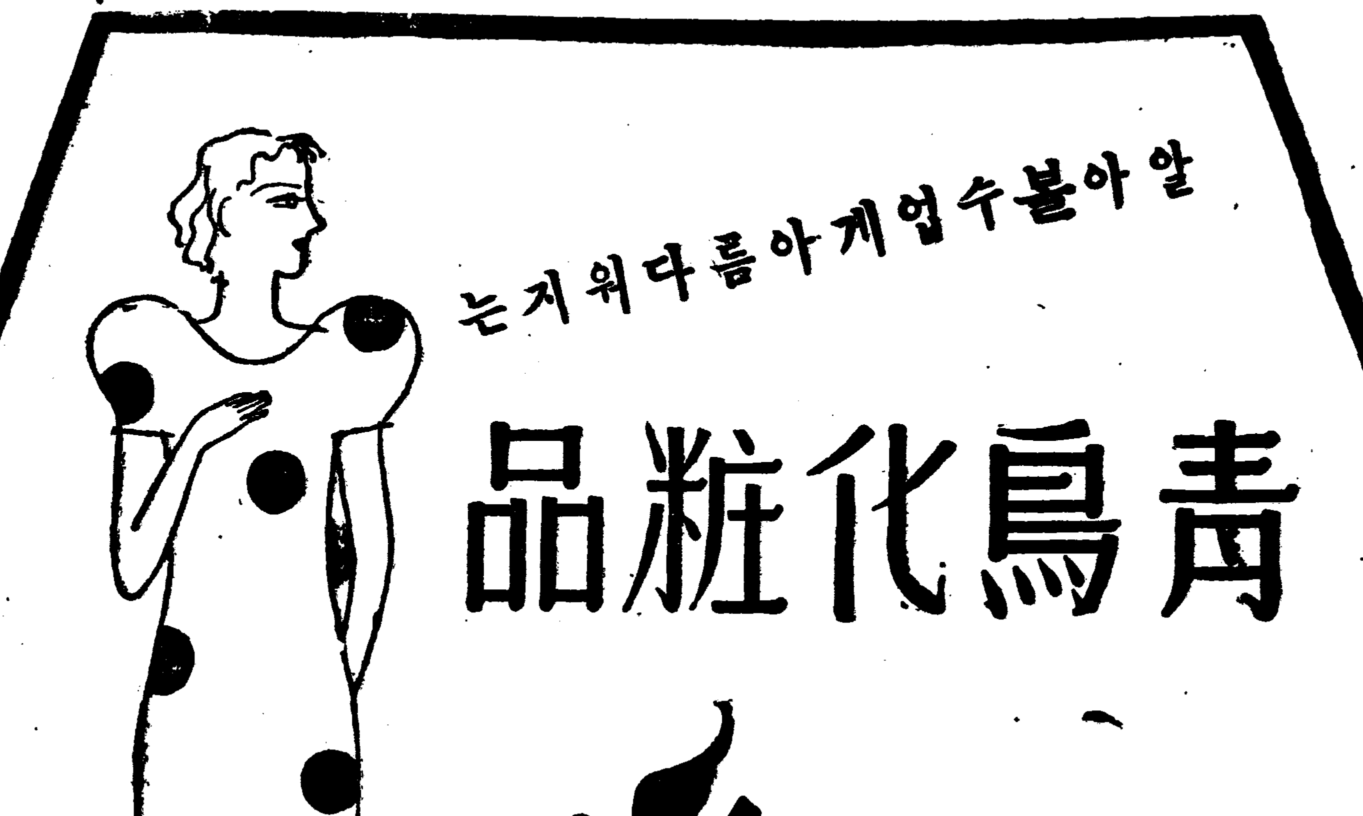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흘때도 過度한讀書로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호렛호렛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낫는名藥입니다 眼前의부족을 [illegible] 병을보는때가게시거든잇지마시고노-신을꼭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탓든가? 하는듯한것을 기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開快해진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낫는것이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服藥으로 苦生하시는분이계시거든 꼭이 노-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주시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신과 비슷한 類似品이 만히나왓사오니 注意하시면서 사실때 登錄商標 帽子印잇는ノーシン에 限하야 注意購入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알아볼수업게아름다워지는
青鳥化粧品



어면化粧品이던지 外見만으로서는 알수업습니다. 使用해보고야비로서그眞價를알수잇습니다. 青鳥化粧品이야말로곡당신에게滿足을드릴것입니다.

青鳥香本……五○전
青鳥바니싱크림……三○전
青鳥水白粉……三○전
青鳥粉白粉……三○전
青鳥頰紅、口紅……三○전
青鳥포마-드……三○전
青鳥香油……三○전

東京 資生堂 監製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illegible]番

十一月六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最高大篇鑑賞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 正午十二時부터
二回 續 映
三回 七時부터始映
大衆料金階下十錢階上十五錢均一
▲松竹京都下加茂特作品을자운드版
時代名篇 道中女仁義 高田浩吉 光川京子 主演
▲메트로社超特作無聲映畵
戀愛名篇 情熱의草 라몬、나바로氏 아리스、테리孃 主演
無聲映畵全盛時代에는綱渡高峰도든名篇이다 南海群道에愛慾名篇
▲메트로社作品
喜活劇 珍勇一番槍 비스다-키-튼 主演

團成社
十一月六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沈默의凱歌、靑春萬才 (近日封切) 黃金、大鎭、사랑의彈丸、小公子、두얼골、海賊밧랑트、國境의거리、파라오千兩名優
高田稔푸로덕슌最近의傑作映畵
掏摸の家 監督 牛原虛彦 原作 長谷川伸、主演高田稔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映畵
低空爆擊 世界平和의喰火國의動亂와中國에捲起되는大空中戰!
◇코럼비아社超特作映畵 第二情報部 메어리에이、라로후빼라미主演 國際스파이戰의最高傑作映畵 迫力과艇力의連續、奇奇怪怪한스파이와스파이의暗中飛躍
◇C·P·C超特作映畵 완·미유라·뫼라·코렌 主演
四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卅分

優美館 貫鐵町 電光三九五
世界的大曲藝團出現動物曲藝團
動物曲藝團
冒險王의 [illegible] 世界的 [illegible] 主演
[illegible] 강그룹線 [illegible] 哥倫比亞社 [illegible] 主演
[illegible] N·DLS社超特作日本版 [illegible]
로-스메다만氏監督 [illegible]
文藝映畵 [illegible] 超特作日本版
十一月六日 [illegible]

眞興王北巡碑踏査記…(三)

荒畓亂水行

李殷相

■■한 ■景에 ■하야 가는지 오는지를 모르는동안 車는 그대로 北進하야 ■■을 지나면서 한옥눈을 구지애스하다 ■■한 山岳美에 ■■가한다。山間이 다투어 내려 ■■에 ■을 잡고고、■■다귀 ■아도는 ■形異態다 ■■■ 三家 ■■數十戶의 그림가튼 마을이엇■ 乘客으로하여금긴 時間의 車行도 ■■■을 모르게함이 ■■ 고마운데、山들이 마저 ■■하야 ■■■지 아넘은 ■■의 ■■에서는다 ■■에서 볼수업는 ■■、美■이라할것이다。

所謂 東北界라는 이地帶가 ■利、■利의 ■■的■■가될 도 ■■이어니와 이가티 ■光의 ■■點으로 보아서도 내것 안되엇던들 어떠케나 ■■을번 하엿겟느냐。

車가 洪原의 ■■을 지나는때에 나는 문득 ■■■■先生이 同乘한것을 보앗다。반가이 인사하매 目的이 마저 가탓다。

同道의 客이 車中에서 서로 만난것만도 반가웟거니와 文史에關한 學問的談話를 바꿀수잇는것이 더한층즐거웟다。

新北靑을 지나매 마중■同行이되는 ■■이 ■을 ■■ 때마다 ■가는다。인사하는이에게마다 名刺를 바꾸매 ■■하노라한 名刺도 어느사이에 끈허진다。■■에 나리매 때는이미正午。主■이 아올■ 百餘의 一■ 꼬요한 시골거리를 것는동안에 우리 一■외뒤에 ■■■이 ■지■■다。어떠케나 재미잇는 行列인지 모른겟다。

그러나 이■■잇는 行列은 고대解散되고말앗다。■■先生께서가 ■■로 ■어가게 때문이엇다。

少■에 ■■한 午■이 끗나고 ■■를 ■■한後에 나는 ■■先生과 作別하기를 ■■하엿다。

■■山이 여기서 三十■■山에서 ■■ 明■의式■에 ■■하기■ 오늘밤을 어떠케 ■用할까하고 생각하다가 나는 ■■山下에잇는 ■■寺에가서 一夜의淸緣을 맷고시펏다。

■■ 여기서는 ■■의■이 ■엇지는 모르되、■■한 ■■ 마라 오늘밤 가을밤을 ■■ 이 보내것기로、나는 구지 이곳을■나 혼자 떠서 저 ■■寺로 ■하려는것이다。■■■이 ■어주겟다는이가 잇서도 나는 그것을 ■■■엿다。■그렇고하니 ■■의■■ 손이■ ■人의 ■■이 ■■비가 ■로 ■는것이라 날■지 一■의 ■■을 맛보게할수는 업기때문이다。

■下의 山門에까지는 自動車의 ■을 어■수잇다고한다。아는길이면 가을날 夕陽을 ■어갈도 조흐련마는、길도모르고 時間도 ■르매 自動車에오르는수밧게업다。常時로 往■하지는 안는모양이오 이번이 ■■特■에 ■明■日■만 ■運轉을 한다고한다。

自動車는 벌서 ■■을 ■낫다。市街를 버서나면서부터 ■■바다으로、■■로、山허리로 가이 ■■으로 가는■ 우■수려 ■어나면、그■■시 바■■ 모■이에 ■■부드치기하고、그러치안코 ■제로 ■■하■ ■■다 ■■지기하는 ■■소가 ■■■■、이것은 ■이■■니오스스로 ■■■■이■구■■、■■■것이라。

自動車는 ■■■■사이로 지안코 달린다。

東北으로、도■■으로、■■에조개■■ 엄어노흔■■ 어■■을 지나기도하며 울가에 소이은 ■■의 을 가로지르기도하면서 ■한 自動車는 무서운■ 린다。

그러나 이를모를■山에 ■이 넘어가려는 夕陽■ 다보매 ■■■인 自動車■도 일어나는 詩情을 ■■ 업다。

나는 저 어린 ■■에게 주고지는 ■■이엇다。나는 ■■의 ■■에 주고자는■이엇다。나는 모든 조선사람에게 주고시픈■이엇다。

나는 이 ■■한 ■■ 기■에서 ■■■■ 우리■ ■■을 ■■■ ■■한 우리生活을 ■■하야 ■■의■ 노래가 ■고시픈 노래이엇다。

가을길 ■■■ 손이끈 저어이야
■■에 ■■■■ 머물고 섯지마라
내엿에 너■■■■ 제물치서 ■아가라。

어버이 가난하야 ■■■ 주■것이
■와 ■■와■ 다■무엇 ■■■
네힘이 ■■■■ 군석하지 말앗스라。

리아리즘의擴大와深化

『川邊風景』과『날개』에關하야 (五)

崔載瑞

언해는 男便의■房에다두고 男子와만나기위하야 그때마다돈을■은것이다。그는 그때마다돈을며리맛 벙어리에다 너허둔다。그러나그것은 고것이 내손가락에 닷든순간에서부터 고벙어리주둥이에서 자최를감조기까지의 하잘것업는 짧은동가이 조앗슬뿐이지 그이상아모기쁨도 업섯다。

그러다가는어느날 고벙어리를변소에갓다가 너허버렷다。그벙어리속에는몃푼이나되는지 모른겟스나 고은회가 째만히드리잇섯다。늘얼마나 常識의世界를떠나 ■■이라! 그러나 그는 金錢을使用할機能을 喪失하야 버린것이다。어느날밤엔 벙어리돈을들고나가서 그것을 써버리라고 밤새도록 도라다니다가 所■을 ■■지못하고 그저도라왓다。이얼마나 돈에對한 冒瀆이냐! 루-소-는 돈가진사람이 부끄러워서 낫을붉힐時代가오기를 바랏다。그러나 돈가진것을 부끄러워하는것보다는 돈을쓸줄 므르는것이 돈에對하야 몃倍나 深刻한 冒瀆일것이다。

어리하야『날개』는 모든常識과 安■의生活을 冒瀆하얏다。그것은 現實에잇서서의 敗北에對한 復讐가되는同時에 그의 날개로 하야금 마음대로 날리기위하야 準備되는것이다。그는懷疑와 絶望과 ■■을 淸掃하는 淸■工作도 ■■하엿다。그는 懷疑와 絶望과 ■■의 一■夜를 ■■서 彷徨한다음 그自身우에 奇蹟이 생기는것을 느꼇다。

『나는 불연듯이 겨드랑이 가렵다。아하그것은 내인공의날개가도닷든 자국이다。오늘은업는 이날개 머리속에서는 희망과야심의 말소된페-지가 딕슈내리넘어가 듯번듯엿다。』

『나는 것든거름을멈추고 그리고 어디한번 이러케 외치고십헛다。

『날개야 다시 도다라 날자。날자。한번만 더 날자스구나。

『한번만 더 날어보자스구나』

몹슨등에서 솟고 귀엽한 ■■■는 그의잇슬곳이업섯다。그러나 그房도그의世■는아니엿다。그러면 그의 靈魂의故鄕은 어듸메나?그것은 옛날에 그의날개가 날아보앗다는世界-詩의世界일것이다。그러나 三越屋上에서『피곤한生活이 똑 금붕어지느러미처럼 흐늑흐늑허비적거리는』灰濁한世界를내려다보며 眩氣를이르키는 그에게 다시금 날개를 도처서 날아볼날이잇슬까

우리는『날개』에서 우리文壇에 드물게보는 리아리즘의深化를가젓다。現代의分裂과矛盾에 이만큼 苦悶한個性도 업거니와그苦悶을 부질업시 咏嘆치안코 이만큼實在化한例를보지못한다『川邊風景』이 우리文學의리아리즘을 一步擴大한데比하야『날개』는 그것을一步深化하얏다고 볼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作品을읽고나서 무엇인가한가지 不足되는느낌을 감출수업다。높은藝術的氣品이라할가 굿세인 迫眞力이라할가 何如든 重大한 一要素를 갓추지못하얏다。

그것은 이作品에 모랄이 업다는것으로써 說明할수잇스리라고생각한다。作者는 이社會에對하야 어느一定한 態度를 가지고잇다。그것은 이 作品의 모든 描語에 나타나는 포-즈이다。그나 그것은 斷片的인 포-즈에不過하고 終始一貫한 人生觀은아니다。常識을 侮蔑하고 現實을 冒瀆하는것이 作者의責任인것은 理解할수잇다。그것이作者의 倫理觀이고 批評原理이고 批評標準이 되엇는나하면 나는 선뜻 對答키에 躊躇한다。作者는 이世上을 睥睨하고 嘲弄함을 은안다。그러나 그 彼岸에 그의 獨自한 世界는 아즉도 發見할수업다。

이것은 그作品全體의 構成上에 나타난 缺陷을 보아도 알수잇다。이作品의 모든 描語는 그하나하나가 모다 수수꺼끼 模樣으로되여잇다。作者가 最初에 出發點으로 뀟고나선 때라독스를 理解만한다면 다음엔 代數의 公式을 풀듯이 우리는 智力만을 가지고도 比較的容易하게 그描畫의 수수꺼끼를 解釋할수잇다。그리고 이하나하나의 描語를 連結하는때 그는 한 機械的인 手段밧게는 가지지 안는다 이作品은 生活속으로부터 우러나 生活自體의 리듬으로부터 成長되지안코 한 表面的場面을 人爲的으로 連結하얏다。이것이 作品에서 藝術的氣品과 迫眞性을 剝奪하는 最大原因일까한다 그리고 作品가운데에 이따금식 보히는 不自然한 供笑와 不愉快한 誇張도 結局 그것이 作者의 모랄에서 우러난것이 아니라 表面의 人爲的 ■■에서 ■■된 것이기때문이라고 ■■한다。모랄의 獲得은 이作者의 將來를 左右할 重大問題일까한다。

漢詩募集

題…重陽

押…香

限十一月十日

(薄謝進呈)

夕陽

實存哲學序說

-하이덱가를中心으로-

④ 朴如涯

卽 이것들은『現存에 適合되는 性格』이라고 생각할수잇다。『잇다』는 이것이 多樣의 樣式 一變化ー形式으로 表現되는것이다 如斯한 多樣의 存在樣式은 무엇이잇다(Wassein)는것이 아니라 도로혀 그것들은 잇다는것이다(Dass-sein)를 말한다。그런故로 吾人은 存在自體를 存在一般으로서 理解하는것이고 따라서 現存一般의 한 樣式을 所謂 人間的現存在(實存)이라고 보는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하이덱가가 實存哲學의 前提로서의 存在概念의 두 性格은 超越的 性格과 『現存在에 適合하는 性格』임을 알엇다。

이제 우리는 다시 나아가 實存哲學의 意圖와 및 그것의 方法(解釋學的方法)이 무엇인가를 究明하여보자。

『엑씨스텐스』란 熟語는 在來의 哲學에 잇서서는 隨意的存在者의 現實的存在라는 意味로 使用되엿다。그러나 하이덱가에 잇서서는 기에르케골과가티 實存이란 熟語는다만人間에 對해서만使用되는것이다。

그런故로 實存에 對하야 哲學한다는것은 人間이란 무엇인가를 뭇는것을 意味하게되는다。大抵 우리가 實存哲學을 正當히 理解하기爲하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人間에對한 實存哲學의 意義를 究明하지아니면 안된다。

吾人의 人間에로의關心은 現代의 한 特徵일것이다 實로 하이덱가의 말과가티『如何한時代도 今日과가티 人間에對하야 이러케도 多種多樣의것을 알지못하얏다。如何한時代도 今日과가티 人間에關한知識을 이러케도 强烈한方法으로表現한 時代도 이엿다。如何한時代도 일즉이 今日과가티 人間에關한 知識을 이러케도 迅速히 또한容易히 提供하지못하얏다。그러나 人間이란 무엇이냐에對하야 如何한時代도今日과가티 적게알려진 時代는업다。또한 如何한時代도 今日과가티 人間이 이러케도懷疑的對象이되는時代는업다』(하이덱가著 칸트와形而上學問題二〇〇頁)

생각컨대 如斯한 人間에關한 知識에로의 時代的關心所謂人間學에로의關心은 吾人이 實存哲學을 正當히 理解하려는데 한 危險이되지도 몰은다。

廣義에잇서서 하이덱가의 實存哲學을 한 人間學으로서 觀察하려는傾向이 成立할수잇다。이곳에서 우리는 먼저 막스·쉘-러의 哲學的人間學을 考慮하여 보려대 쉘-러의 哲學的人間學은 自然의諸領域(非有機的인것 植物、動物)과 萬物의基礎에對하야 人間의가지는關係와 人間의 形而上學的起源及生理的 心理的 또는 精神的起源等에對하야 硏究하는學問이요 그것은 人間의 本質及 本質構造의 根本的學問인것이다(막스·쉘-러著哲學的世界觀一五頁參照)。如斯히 哲學的人間學은 人間이란 存在者를 植物이라든가 動物이라든가 其他存在者의 餘剩의 範圍에對立하야 區別함으로서 存在者의 規定領域의 本質을 構成하자는것이 그것의 目的이까닭에 所謂哲學的人間學은 人間存在의 한領域的存在論밧게는 못될것이다。

그것은 人間學을 保有하는것이나 그러나 하이덱가의 實存分析은 人間에 對하야 못는것이나 아니다。人間學的 實存分析은 人間의 한 部分이 아니라 實存全體를 問題삼는것이다。

그러나 人間學그것을 否定함은 아니라는것에 注意할것이다。그러면 實存分析으로서의 人間學은 如何한 意圖미테 成立되는 것일가。

그것의 意圖는 存在學의 基礎를 樹立하자는데잇는것이다。하이덱가哲學의 모든 本質的問題는 形而上學의 새로운 基礎를 樹立하자는意圖에잇어서 發生하는 것이다。如斯한 見地에 立脚하야 우리는 形而上學의基礎를 目的하는 새로운意味의 哲學的人間學을 생각할수잇는것이 아닐가

그런데 實存分析은 認識理論이 아니다。本質的으로한存在論的인 明證觀火의事實이다。이特殊的인 實存의存在論이 아닐때로 形而上學一般에對하야 그것의基礎(Fundament)가될것이다。그런故로實存分析은 基礎的 存在論的이아니면안된다。우리는 이 基礎的存在論的 意圖를 實存哲學의 根本意圖라고 생각할수잇다。그런데 이곳에서 하나注意할것은形而上學을 目的으로하는 實存分析은 人間的存在者의 一部分이 아니요 實存그것卽 全體的人間存在를 主題삼는것이다

新刊紹介

◆野談 十一月號(內容) 五月號 … 金笠 三十年의野心 … 시이여 江湖四時歌 大院君 … 叢書、中國■■ 五月의어버이 … 發行所 京城府 … 野談社 振替京城二一八二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카톨닉靑年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一丁目一 카톨닉靑年社 振替京城二三四六番 定價十五錢 送料一錢

◆月刊野談 十一月號(內容) …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자자사 十一月號 發行所 … 振替京城二三二番 定價五錢

曆

十一月七日(土)

陰丙子九月廿四日

癸巳·水·柳宿

●霜降二十三日(初九日)

●立冬七日(二十四日)

漢詩

題 白頭山

押 峰

桐岡 考選

佳作之三

平壤府新陽里六二 道溪生

虎踞壬方備要衝

我東用此作金墉

橫蟠地軸誇雄勢

直抵天門聳大峯

北攬遼金千里野

南爲麗濟萬山宗

非徒連抱多材本

能遣長江浹洽農

「조선어표준말모음」(5)

첫재、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ㅈ과 ㅊ의 通用

【ㅈ올취함】

만지다(動)摩

만치다

바가지(名)瓢

바가치

번지다(動)漫溢

번치다

송아지(名)犢

송아치

자비(名)慈悲(憐愍)

차비

러전(名)廛

러천

혼자(副)獨

혼차

【ㅊ올취함】

[illegible]

꼬챙이

꼬치(名)串

꼬지

머추하다(形)一時止

머주하다

머츠막하다

밀천(名)本錢

밀전

천량(名)錢糧

전량

●ㅋ과 ㄱ의 通用

【ㅋ을 취함】

가리키다(動)指

가리치다

가르치다

키(名)箕

치

●ㅌ과 ㄷ의 通用

【ㅊ을취함】

멍청이(名)愚鈍

멍텅이

멍텅구리

멍추

●ㅍ과 ㅂ의 通用

【ㅍ을 취함】

거룩지다(形)身言莊重

거룩지다

●ㅎ과 ㄱ의 通用

【ㅎ을취함】

켜다(動)點火

혀다

서다

●ㅏ와 ㅐ의 通用

【ㅏ를취함】

(a)후소리(後音)의 通用

가랑이(名)股

가랭이

가자미(名)鰈

가재미

가재미

곰팡이(名)黴

곰팽이

곰팡

고장이(名)女褌衣

고쟁이

고장바지

나비기(名)年多者

나배기

낭창이(名)保健

낭쟁이

나인(名)內人(宮女)

내인

눈보라(名)吹雪

눈바라

단주(名)紐

단추

다변호(名)大年號

대변호

달라다(動)求請

달래다

다리(名)脚、橋

대리

달이다(動)煎

대리다

다리다(動)熨

대리다

다리미(名)熨斗

대리미

대르리

다붙이다(動)接近

대붙이다

당기다(動)引

댕기다

다니다

다리다

단기다

다지르다(動)搖

대지르다

만들다(動)製造

맨들다

망글다

멋장이(名)放蕩者

멋쟁이

멍주머기

모가비(名)人夫頭目

*모개비

미장이(名)泥匠

미쟁이

쓰르라미(名)寒蟬

쓰르래미

通俗醫學講演會

第二回

演士 演題

異常體質兒에對하야 李炳南

空氣와健康 崔義楹

花柳病에對하야 金應允

時日 十一月十四日午後七時半

場所 中央基督敎青年會館

入場料 無料 但 場內整理料十錢徵收

主催 駱山醫學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連載野談 (一五)

布袋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마저죽거소원(十三)

리선전관이 그 큰말을 단정히 엇고 문밖을 향하야 나아갓세 그 창두가 뒤에 따르며

『나리마님! 소인이 대감을 뵈올때나 윤상대감、선부원수대감을 뵈올때 아예 소인의 말씀은 내시지 마시고 오직 나리마님께서 그 동안 지내신 말씀과 장차 뜻하시는바슬에 대한 말씀만 간절히 야기하시는것이 일을 위하와 유익할줄 생각합니다。대감께서도 속으로는 다 짐작하시는일이 아니오 만은 것들로 보아 청을 밧고주신 하는양을 보이시려가 만무할터이오니 아모리 속으로는 짜노흔 일이라도 체면상 소인을 들어말씀하시는것은 불가할듯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말을 잘하기를 신신 부탁하얏다。

『오오 그야 다시일를 말인가 그만경우도 모르는 나로써아느냐 허허。』

하고 리선전관은 너털웃음을셔긴 말로써 그 창두의 부탁하는것을 잘들은양으로 쾌활하게 대답하얏다。

그리고 리선전관은 문밖게서 기달리고잇는 말을 대문압호로 각까히 불넛다。

그말은 가진 상모와 전후거리 안장을 지엇스니 말의 치장도 또한 범연치 안커니와 이청과 떼용으로써 별배복색을식히여 따르게하니 그만하면 선전관의 행차로서는 빠질것이 업서 보이엿다。

『옹、말의 치장이 퍽히 찬파치 안코나!』

하고 리선전관이 말우에 선뜻 올라 타고 마부로하야금 말을 몰게할새 이청이와 떼용이는말뒤에 따르게하고 그창두는 따로 떨어저 오게하얏다。

리선전관이 이러듯 귀구를채리고 나서니 과연 그풍신이놉늠하야 길을 지내는 사람이처다 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별로 업섯다。

그렁、저렁、병조판서(兵曹判書)리귀(李貴)의집에 당도하야 문밧게서 말을 내리고 도보로 걸어들어가 청지기로하여금 명함을들여 보내엇다。

『옹、이사람이 어데잇다가 왓는구。』

하고 리귀는 매우 의아한 긔색을 띄우며 들어오기를 허락하얏다。

리선전관이 단정한 거름으로 재배한뒤에

『그동안 시골가서 지내와기로 대감께 문안하오지 못하고 … 데되엿삽고 또한 놈트에 파무친 몸이되와 상서(上書)로라도 문안(問安)이 적조되엿슴은 지실로 황송합니다。』

하며 그 동안 매우 적조되엿다는 말로써 처이사말을 조심잇게하얏다。

『예이、천만의 말。』

하며 리귀는 간단한 말로써리선전관의 말을 대답하얏다。

리선전관은 처이사말을 치른뒤에는 두손을 압흐로 염의고공순히 서잇섯다。

이때 리귀는 떠다시 다른말이 업고 다만 담배만 뻑、뻑 말아서 그 연기를 길게 내뿜엇다。

리선전관은 말이업시 한참동안을 서잇다가

『대감께 엿줄기가 너머나 황송하오이다。』

하고 구사(求仕)하려온 뜻의 짝대기를 시작하려하얏다。

『옹、무슨 말인가?』

하고 리귀는 더욱 커드름을 피며 리선전관을 한번 치어다보앗다。

리선전관은 리귀가 무슨말이나 물으며 치어다 보는데 대하야 은근히 깃브생각이 가슴속에 떠 올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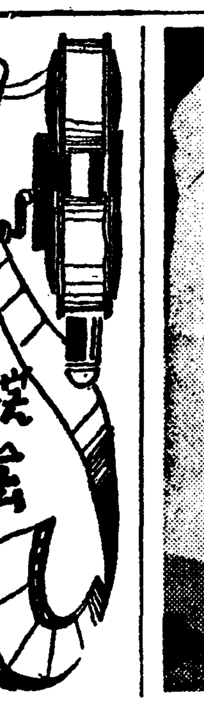
그것은 다름아니라 원래 세력이잇는 재상이 벼슬을 청하는 사람에게 대하야 마음에 족옵실측한것이 잇스면 말대꾸도 잘 아니하고 치어다보지도 아니하며 좀더 심한 경우면 애당초에 만나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거만스러운 버릇을 가지는것이 보통 례의이엿다。

그런데 리귀는 리선전관을만나 볼뿐만아니라 리선전관의 태도를 살피기도하고 또는 리선전관의 말을 잘 들으려고도하는것이 분명 속이잇서 그럼을로만 생각한 까닭이다。

이때 리선전관은 지극히 공순한 태도로써 다시금 리귀의 긔색을 살피엇다。

그리는동 리선전관의 가슴은 약간 울먹거리엿다。

(公演即前의 樂劇研究會)



新劇과 興行劇
主로 劇研에 向한 注文
② 申孫吉

興行劇團의 今日을 지주지 그 根本的인 社會的環境에서 차저보려하매 먼저 人間的으로보는 그에들의 悲哀와 苦痛은 너무도 側隱慘憺한바가 잇는것이다 남카라운良心아페 觀照된自身의 纏綿한 꼬라지를 發見할때마다 悲痛한 人生恨歎와 憤慨한 社會咀呪의 숨결이 놉아섯슬것을 우리는 잘안다.

眞實을 누길때마다 敎養을닥그려하엿스되 貧弱한社會는 그들을爲해서 修業의길을 열어줄만한 溫床的機關을 베푸러주지 안엇고 오히려 無慈悲한 陵辱로써만 그들을 비웃고잇섯스니 疎遠받지못한 그들의갈길은 어데엿든가? 오직 自暴自棄에서 極度로疲勞한몸이되여 口腹이도 한심스럽게 絶對服從을 强制하는 金權階級이 縱從하는바 興行的機構안에서 無理한 搾取에도反抗할수조차업는 彈力性을 잃어바린 無氣力한人間이 되어오른 것이다.

勿論 그中에는 참된良心的情熱과 藝術的意慾에 불타는 進步的人物이 업는것이 아니지만 實로 犧牲不過한 人生들의 混成旅團이라고나 할는지?

어느意味로 보아서는 이興行劇團은 朝鮮의 一面相을 비처노흔 거울이가고도 생각되거니와 이모든 不幸은 朝鮮의 不幸이요 어느누구에게도 轉嫁시킬수업는 共同責任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自然人的一面과 社會人的一面을 混同하지안이하는 冷靜이 잇서야 할것인同時에 아모리 발을러기爲해서 하는노릇이라고 하드라도 生活問題와 生存問題와를 區別할줄아는 聰明도 잇서야할것이다.

◇

文學靑年 藝術만 읽으면 범서 早老病에 걸녀서 一篇 評論家然하는 者들을 文壇에서도 往往히 發見할수잇는 不幸이엇거니와 이건 藝術實際에잇서서 初步的常識도 업는사람이 「팜푸렛트」冊이나 읽으면 곳 演劇從界에 立法者가되고 裁判官이되는 痛哭無恥한 闖入者의 跋扈를보게되는 不快가잇다.

沈滯에서 躍進하려고 悶하는者 만흐되 그打開할 俱體的方法을 提示해주는者 업섯으니 이따위 評論이 舊을援해서 發表되기로 훌륭한 反響이늘 생길理가 萬無한것이다. 評的諸要素를 喪失한 批評은 한갓 空想遊戱요 不健實한行動의 發作以外에 아모것도 아이니 이러한 謙愼性업는 鐵面皮들이야말로 貴族地主的心理를代表한 새로운觀念宗派의 도련님들이아니면 묵어빠진理想主義의 머슴아이들임바게 업는것이다.

六日(金曜)

◇午後六時 이야기「周時經」 辛鳳祚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課外講座 梨花女高 李德鳳
◇同七時三○分 國民精神作興週間(一) 「國民精神作興週間을當하야」 京城府社會課長 金永祚
◇同八時 歌詞 一、白鷗詞 二、黃鶯詞
◇同八時二○分 一、楚漢歌 二、夢金浦打鈴外 三、寧邊歌 四、山念佛 大笒 杖鼓 金蕉紅 金蘭珠 金永根 金一宇 大笒 金玉仙 金永根
◇同八時四○分(東) 獨唱과管絃樂 獨唱 伊藤敦子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가에라노·조에리

七日(土曜)

◇午後零時五五分(東) 輕音樂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織物의常識」 任貞峯
◇同六時 童謠舞踊과童話 一、(齊唱)저녁별과 二、(同)우리의엣집 三、(獨唱)자미잇는 四、(齊唱)봄 五、(獨唱)나의집 六、(齊唱)옥나라의꽃 七、(獨唱)眠蠶 八、(齊唱)가을밤 九、(同)자장가 任榮愛 洪貞嬪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週間時事
◇同七時三○分 國民精神作興週間(二) 經學院司成 金完鎭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同八時三○分 流行歌 歌手 金福姬 外 DK管絃樂
◇同九時 古典 金奇緣

第一放送

◇午前一○時三○分 어머니時間
◇午後○時五分(東) 輕音樂
◇同二時(東) 婦人時間
◇同六時(大) 幼兒들의한옛날이야기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分(東) 어린이와家庭의밤
◇同九時 時事解說

八日(日曜)

◇午後○時五分 雜歌 一、… 二、양산라령 三、… 柳開東 韓仁完 蘇學俊
◇同一時二○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 童話劇「王의금잔」 指揮 孔德少年會 金容德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七時三○分 國民精神作興週間(三) 中樞院參議 朴榮喆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 二、羽樂 三、灣界樂 四、界樂 五、編 洋琴 大笒 杖鼓 金相根 金永淳 金玉花 金鳳仙
◇同八時二○分(東) 室內樂四重奏曲 第二作品二二 차이코프스키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 모데라ー토·아사이·파지·안단테 第二樂章 알레그로·쥬스토 第三樂章 안단테·마논·탄토 第四樂章 알레그로·콘모토 第一빠이올린 알레산더ー모기레후스키 第二빠이올린 에르네스트·토마싯테 비올라 미하엘·캐슬레 첼로 伊達三郞
◇同八時五五分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어허靑春 나、唱調…沈淸歌 鼓手 韓成俊 成錦花
◇同一○時 朝鮮交換放送(滿洲로부터)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子供日本史(十一)
◇同六時二五分 產業ニユース
◇同七時三○分(臺北) 臺灣人形戲
◇同七時五○分(東) 日曜特輯
◇同八時二○分(大) 室內樂
◇同八時五五分(東) 라디오風景

英國뻘합스톤써커스(獎忠壇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割引券

박스席	五○○	三○○
特別席	二五○	二○○
A席	一五○	一○○
B席		七○

八日까지 晝夜興行 晝 午後一時 夜 午後六時

「興甫傳公演」(十一月五日早日 五日間東洋劇場에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入場料 階上九十錢 七十錢으로 階下七十錢 五十錢으로
一人一枚

鮮滿優待
應募者는全部맛는 大懸賞!

强力乳化裝置코로이도·미루使用超微粒子
ヘチマクリーム 헤치마크림 의愛用者大優待!

下記文中에三○에文字를너허서有名한化粧品의이름이 됩니다 무엇이겟습니까?

課題
强力乳化裝置コロイド・ミル
使用の超微粒子○○○クリーム

御應募의方法

一、ヘチマクリーム의外箱裏面에(ヘチマコロン의外箱은無効)
課題의答
1 이廣告를보신朝鮮日報名
2 特等及一等의賞品中希望하시는品名을各一點式
3 당신의住所及姓名
4 을明瞭하게記入하고
(イ) 가장가까운ヘチマクリーム販賣店에委託해주십시오、
(ロ) 또는左記로直接郵送하십시오 (但直接郵送하시는境遇는封筒에 넣어서「滿鮮懸賞」이라고朱書하고十五瓦(四匁)마다三錢切手를貼付하십시오 料金不足은拒絶합니다)
보내실곳 東京市日本橋區橫山町六 天野源七商店滿鮮懸賞係
二、應募와同時에抽籤券及總當籤景品을보내드립니다
三、締切後 다시 東京小賣店化粧品商報社에서嚴正抽籤한後 各各規定의二重賞品을보내드립니다、
四、當籤發表는 抽籤後一流日刊新聞紙上에揭載합니다、二重賞品은當籤發表後約一個月以內로全部發送豫定입니다

—滿鮮地方に限る愛用者優待です—

總當り景品
後れ毛止め兼用櫛 一本宛
御應募と同時に洩れなく郵送致します

다시抽籤하야二重賞品

特等 一○○名 左記中希望品一點
一、新柄小紋錦紗 一反宛
二、刺繡入友禪羽二重帶地 一本宛
三、色紋錦紗 一反宛
四、純毛毛布(二枚續) 一枚宛
五、本ラクダショール 一枚宛
六、防寒用コート地 一反宛
七、御裁縫用具桐箱入 一式宛
八、卓上ミシン 一臺宛
賞品全部東京坂屋特選

壹等 五○○名樣 左記中希望品一點
1. ステープル小紋 一反宛(百名樣)
2. 本銘仙 一反宛(百名樣)
3. 晴雨兼用絹張洋傘 一本宛(百名樣)
4. 革製ハンドバッグ 一個宛(百名樣)
5. 電氣アイロン 一個宛(百名樣)
注意 壹等賞品은各品共히百點限으로制限이잇스므로同一賞品에希望者多數인境遇는抽籤에依하야賞品을交換하오니 이곳에마케주십시오

貳等 二○○○名樣 金色パール セルロイド製 懷中化粧具 一組宛

ヘチマクリーム 定價 三○전 五○전 七○전
本舖 東京 天野源七商店

更生指導部落全滅 農振運動에支障

慶南道內千餘部落에被害二百萬圓

旣定計畫을變更乎

【釜山】경상남도에서는 농어촌진흥을 목적으로 지난소화팔년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농산어촌갱생지도부락을 설치하기시작하야 금년도현재까지에 일천이백륙개부락에달하고 또그부락내에거주하는 농어민 이만구천칠백이십팔호에 농어촌경제갱생오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목적을 달성하도록 지도협력하야오던바 지난번의 대풍수해로 그지도부락중 일천륙십오개부락、일만칠천삼백사십오호가 피해를당하야서 가옥피해액 칠만오천칠백칠십이원 가축피해액 일천팔백칠십이원 농작물피해액 일백사십구만삼천팔백팔십사원 경지피해액 사십칠만구천사백륙십팔원으로 총계이백오만일백칠십칠원에 달하얏스므로 그들농어민은 극도의곤궁에빠저잇는터이라 우선기한부구급할것이 급선무인편이라한다 그래서 못처럼 계획한 농어촌진흥운동도 일대난관에봉착하게되얏스므로 그갱생계획을변경할수박게업스리라한다

朴泰俊氏獨唱會 本報支局後援으로

【公州】충남공주사립영명보통학교(公州私立永明普通學校)동창회(同窓會)주최와 본보공주지국후원으로 오는십일일오후칠시반에 당지상반정 례배당에서 바리톤가수 박태준(朴泰俊)씨작곡발표(作曲發表)급 독창회를개최한다는데 전긔 박태준(朴泰俊)씨는 미국에 건너가서 사년동안 음악을 전공하고 금번에 대구(大邱)로부터 남조선을 순회하면서 작곡발표와 독창회를 열게되야 제일착으로 공주에오게되엿다 동창회임원과 보통권오십전으로 특별회원권일원과 보통권오십전으로 발행한다하며 수입금은 전긔영명보교의설비비용으로 제공한다고한다

長坪公立普校 學級增設實現

【楊口】강원도양구방산면(方山面)에 잇는 장평보통학교(長坪公普)는거금십팔년전에 창설되야 무려수백의 졸업생을 길러내인 벽지유일의 교육긔관인바 불과사학급으로 입학아동의 수용은 일할밧게 안되여 일반은 유감으로여기고 잇든중 현재면장 차도윤(車道潤)씨가 부임이래 부단의노력을 한결과 학급증설 긔성회를 조직하고 긔본금 조성에 맹활동을 한바 거의에 정액에 달하엿슴으로 도당국에 증급신청을한바 하로바비 증급허가가나기를 기다리고잇다한다

勤續訓導表彰

【溫水】지난삼일에 강화길상보교(江華吉祥普校)후원회에서는 본교직 [illegible]

地料三倍引上에 借地人結束反對

市民大會開催코對策을講究

文區市民의死活問題

【海州】황해도평산군문무면문구시장(平山郡文武面文區市場)은산간벽지로 교통은 서흥(瑞興)해주(海州)간 삼등도로가 관통되엿고 서흥(瑞興) 신막(新幕)을 연결하는 일대시장으로 호수는 일백여호에 구백여인구가 거주하는바 시장은 평안정 칠팔백삼십사평의 대지가 재령군신원면신원리(載寧郡新院面新院里)김찬순(金讚淳)씨가 금번 평당일원의 사삼전식에 대지 일만이천여평을 매수하고 차지료(借地料)를 매매가격의 일할이상의 차지료를 종래의 차지료보다 삼배이상을 요구함으로 문구시주위에살고 있는 이백여명의 지주와 차지인들은 너무 가혹하다하야 마수의 농민들은 문구시번영회(文區市繁榮會)에서는 이는 문구시민의 사활문제라하야 이번에 팔백여명의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번영회장 장순식(張順植)씨의사회하에 좌기사항을 결의하고 각위원을 선정하엿다한다

◇決議事項

一、지주의요구에대하야 차지료인상동지에 대한답안

一、지주가 법정수속에 의하야 청구하는 시는 그상대방의대책

一、차지인은 개인행동을 취치말고 동일히 책임을질것

一、차지인의대항이 불리에귀할 시는 시장이전의건

一、이에대한 비용의건

一、시장의 위치는 문무면화원리(文武面花院里)로 이전의건

◇委員…張順植 尹富烈 李廷陽 小田原啓二 趙道球 文種榮

◇準備委員 韓昇煥 金永培 張輔炯 金基洞 林漢淑 韓東赫 金東日 金俊洙 外八人

다음과갓다한다 金厚玉 車根澈 李正玉 鄭春基 曹南基

全北道教育會主催 教育參考館設立

朝鮮初有教育界盛事

【全州】전북도교육회에서는 향토교육자료수집을 중심으로 실제 교육연구의 전당(殿堂)인 교육참고관(敎育參考館)을 건설코저 목하준비에 분망중이라는데 총공비는 일만이천원 예산으로 도청연해엿는 전공업보습학교사에 증축하리라하며 재원은 도내교육회의보조와 뜻잇는 독지가의 의연으로 기타 도내 특지가의 희사를 모집할것이라는바 장교관이 설립되는즉시로 중등학교와 공립학교 등 각 학교를 개방하리라하며 이 참고관은 조선에서는 아즉처음되는것이어서 일반은 다대한 기대를가지고잇다는데 참고관의 내용은 다음과갓다

一、教育資料陳列室 道內各學校에 教育上參考的文獻、重要한參考가될만한標本物的의陳列

或은模型과 動物의標本等을陳列

一、圖書陳列 目下學務課에서 保管中인教育文庫、古文書等을陳列

光州支局後援의 南朝鮮씨름大會 來十一、二兩日間

【光州】남조선에잇서서 씨름대회가 잇슨지오래엿든바 금반광주청년회 주최로 오는십일、이양일간에 남조선씨름대회를개최하기로되엿는바 상품은 일등부터 삼등까지로서 일등에는 농우일두와 부상이십원 이등에는 삼십원 삼등은 오원 이라하며 소년에도 농우일두가 잇다는바 각지방으로부터 만흔참가가잇기를 바란다한다

農倉證券을僞造 五千圓詐取着服

正租一千餘叺保管으로假裝

前農會技手嚴取調

【咸興】원제평군농회 기수과장선(金昌善)은 목하함흥경찰서에서 취조를 밧고잇다는데 그는 일천여가마의 정조를 농창에 보관한것처럼 가장하고 농창증권을 위조하야 사천원의 담보로 오천원을 사취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여 [illegible] 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다한다

元山市內自轉車 三千八百餘台

【元山】원산부에서 집계한 원산시내에잇는 자전차(自轉車)는 총계 삼천팔백삼십사대로서 작년보다 구백륙십사대나 증가되엿다 미국(米國)가튼 나라는데 사람아페 자동차가 한대식간다는데 원산시민은 열여섯사람아페 자전차가 한대식가는셈이다 이러케 교통긔관에 쓰는돈명리 그도 선진과후진에따라 또는그

第二公普校에 千一百圓提供

【木浦】목포의 제이공립보통학교는 개교한지사년에 모든시설이 미비하야 교육상 섭섭한불편을늣기든바 지난십삼일에 동교후원회를열고 모든 설비방침을 협의하든중 참석하엿든 김철진(金哲鎭)씨로부터 봉안소건설비 일천백원을 자담하겟다고 자진희사하엿슴으로 일반 학부형은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씨의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棉花出廻全無로 過冬準備에脅威

共販制缺陷에非難聲高調

當局의對策講究要望

【舍人】평남 순천군 사인지에는 지난입동에 벌서 백설까지 나리어 과동준비에 더욱 밧부고잇는 이때『공판!』(共販)제의 실시로인하야 겨울사리에 업지못할『면화!』의 구입은 전혀불능하게되엿슴으로 닥치오는 엄한을 압두고 일반가정의 두통거리가 되여잇슬뿐아니라 당국의 공판제도에 대하여 또다시 원성이 폭발되고말엇다 본보에 긔보한바도 잇거니와 사인지에는 거번 군농회로부터 면화공판매를 실시한이래 시일이되여도 한근도 나오지 안흠으로 면화구경도 할수업게 되엿는바 그로인하야 일반은 가정용도 지를못하고 이미 입동(立冬)이 된 오늘까지도 솜옷준비를 못하여서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엿슴은 물론 공판제는 왕왕히 이러한결함 저러한불편에 차차 원성이 노파 또다시『공판!』제반대의 긔세가 군민전반에 오르고잇다는데 그면화가 출회치 아니하는리유는 가격이 저렴한 관계상 생산지에서 알부러 반해다 팔필요가 업는반면에도 한 수요자측에서는 생산지에가서라도 살수업시 만드러 노흔 공판제도때문에 아무리 돈잇슬지라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형편이라는비 빨니 당국자로서 무슨대책이 업는경우에는 필경

親友를亂刺致死

些少한口論이導火線

犯人은警察이逮捕

【咸平】지나간십일일오후 시경에 함평군함평면주포(咸平郡咸平面酒浦)강동술(姜東述)(三二)은 그 친구되는 정명준(鄭明俊)(二三)을 사소한 구론을하다가 불시에 헌자이상의조선 식도(食刀)를가지고와서 좌측흉부(左胸部)를찌르고 또좌측복부(左側腹部)를찔러 그즉시 절명케되얏는데 강동술은 그즉시 그곳을떠나 읍내로 드러와 경찰업시 야반에 류혈된 의복을입고 지나가는것을 순회중이든 조형사(趙刑事)의 눈에띄우게되야 언제포한결과 엄중취조하야 살인하얏다고 자백하얏다는데 강동술은 원래부터 소행이 조치못한자이엇다한다

全北에初雪 一寸假量싸여

【全州】전북 장수군계북면덕우산(長水郡溪北面德右山)에는 지난이일에 약일촌가량 적설이잇섯다는데 작년에비하면 약닷새동안이나 빠르다고한다

貯木場不完備로 流失材十萬餘圓

總工事費十八萬圓을드려서 大貯木場設置決定

【新義州】신의주는 국경도시안동시에 압록강재(鴨綠江材)의집산지로 목도(木都)라는 명칭을갓고 잇슴에도불고하고 떼목(筏)의보관장소인 저목장(貯木場)의 설비가 충분치못하야 매번『벌목』업자는 다대한손해를 입어 소화일년전부터 동신면까지에 십만여원의벌목 류실(流失)을보이고잇는데 저목장으로는 현재부의북하동(北下洞)이란곳에 약십만평의 저목장과 제이수문(水門)부근에 사만평의 저목장이 잇슬뿐으로 저목장의 부족을 늣겨오든중 이번압록강재목산업조합(木材産業組合)에서 총독부로부터 사만원의보조를받어 총공비십팔만원에 달하는대저목장을 신의주제이수문(第二水門)부근에다가 진설키로 결정되여 불일간 공사에 착수하리라한다

車夫無慘轢死

【水原】지난사일 수원읍지야정(水原邑池野町)에사는 강수동(姜壽同)(二三)은 동일 우만정에가서 우차에『베뭇』을 만히실코오다가 도중에서 불의에우차가 전복되여 전긔강수동은 무참히도 그만차에치여 즉사하얏다고한다

邑面職員의共濟會 社團法人으로組織

【釜山】경남도에서는 도내에잇는 팔읍(八邑)이백삼십칠개면에 종사하고잇는직원 이천륙백명을 총동원하야 상호공제조합(相互共濟組合)을 조직하고자 방금계획중인데 오는십이일에 부윤 군수회의에 제출하야 최후적인의결한후 명년일월부터 실시한다는데 그조직형식은 사단법인(社團法人)제로한다고한다

五千圓工費醵出 道路復舊를運動

江陵商榮會에서率先活動으로

代表者近近道에陳情

【江陵】과반의수재로 강릉을 중심하야 각성간을제하고는 각지의로선(路線)이 불통되여 무역의도로로 강릉상계에 심대한영향을끼치리라함은 긔보한바이지만 특히 강릉정선(旌善)간의로선은 그야말로강릉의 생명선인데 이로선이 상당도로이어서 과반 강원도당국자가 이재민구제사업으로 하는 복구공사중에드러가지 못한탓으로 이로선의 복구는 전연소망이 업게되엇다 그리하야 강릉부상인측에서 상게의타격도 타격이러니와 정선 평창등지의 물자는 운임고(運賃高)로말미아마 강조용회가 전례업는 고가로 매매되어 이니 량지파거의 교분으로보하 이러한 문제를 대안회시 할수업다는데 의견의일치를 보게되어 지난일일 오후네시 드되어 강릉상영회(江陵商榮會)에서는 긴급회의를 회장대에서열고 상영회에서로복구비로 이천오백원을 지출할것을 결의하는동시에 일반관게지방에게 이천오백원 기출할것을 중앙하야 강원도당국에 제공하야 이로선의복구를 지정하기로 되얏든바 불일내로 이것을 가지고 강원도당국에 진정하기로 되엿는데 백만원의 손실을 리게민의손으로 가증하는것을 히 복구공사에 착수하여주기를 갈망하고잇다 큰문제화할것으로 보여 고잇다한다

三一學校增築費로 現金二千圓喜捨

水原車裕舜氏盛擧

【水原】당지삼일교육긔관이부족되여 연연이노상에서 방황하는 아동이느림을보고 수원읍 상업학교에 차유순(車裕舜)씨는 교실증축에써달라고 현금이천원을 희사하얏슴으로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木浦稅務署管內 風水害免稅額

五百九十八人에千四百四十六圓

【木浦】금번의 대풍수해로인하야 목포세무서의 관내 전답상에 이라한 토지는 보도한바어니와 최근목포세무서의 지세면세(地稅免稅)인원이 오백구십팔인 면세액이 일천사백사십륙원이라는바 그를면별로보면 다음과갓다한다

◇務安郡 老齋 一七町(六六圓) 飛禽 六町(五圓) 都草 三三町(一八圓) 一二老齋 三三町(二五圓) 大町(五四圓) 計九六町(二七九圓)

◇新島郡 一岩泰 五二町(一五三圓) 慈恩 五四町(二五五) 押海 一四町(八〇圓) 荏子 一〇町(三三圓) 智島 五〇町(一五八圓) 島草 一五町(一一圓) 計 二二三町(七七七圓) 合計 三〇九町歩(一、〇四六圓)

楊口郡下에 腸窒扶斯猖獗

【楊口】강원도 양구군내에서는 요사이 장질부사가 창궐한다는데 지난삼일 제외하자는 양구면고대리(高垈里)팔동리의 이씨 노파 외에 황씨등 네명이나되며 사망자일명이잇서서 정차로 환자를격리하고 경찰당국에서는 방역진을펴고 예방주사를 일반에노력중이나 일반은 우려하야마지안는다한다

大膽한女竊盜犯 夜警員에被逮

【牡丹江】지난사일밤 오후칠시경에 서목단가(西牡丹街)삼신상점(三信商店)에절도가 침입하야 현금사십원가량을 절취하야가는바 때마침 경계를 하고 잇든 김소대장(金小隊長)에게 발견되야 추격끄테 무난히 체포하엿는데 그는 의외에도 묘령녀자김인덕(金仁德)(二三)이란미인으로 취조에따라 여죄가만히잇스리라는데 방금령안서에서 엄중취조를 밧고잇다한다

棉花販賣場에서 竊盜一名逮捕

【牙山】백주에 큰길에서 돈지갑을 훔치다가 온치장에갓자! 경부선조치원(鳥致院)역전에 주소를둔 자로 아산군온양면온천리(溫陽面溫泉里)로 면화(棉花)를 매매하려오는사람의 돈지갑을 훔치다가 발각되여 도주하다가 순회하든 경관의손에 체포되엇는데 여죄가 만흘 모양이라한다

愛慾의彼岸 【143】

李光洙 作

金康稷 畵

『내려가!』

하고 운주는 손으로 층층대를 가르첫다。

문임은 하라는 층층대로 나려갓다。

문임이가 서너계단 나려갈슬때에 운주는 이층의 불을끄더니 층층대로 따라섯다。

운주의 쾅쾅하는 발人소리가 등뒤에 들릴때마다 문임은 운주의 억세인손이 제목덜미를꽉 그러쥐이는듯해서 쭈쭈 소름이끼치고 다리가 떨떨 떨렷다。

문임은 계단을 다 내려와서는 잡혀가는 죄수가 간수하는 경관을 바라보드시 운주를바라보앗다。

운주는 한손으로 문임의팔을 끼고 한손으로현관문을 열엇다。

그리고는、

『상도야、이문 걸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문임을 끌어다가 택시에 태우려 하엿다。

『어디를 가서요?』

하고 문임은 택시아페서 한걸음 뒤로물러섯다。

운주는 그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한 손으로는 문임의 팔을 끼고 한 손으로는 자동차 문을 열어제치고는 문임을 자동차에 밀어넣코 그러고는 자긔도 올라타고、제 손으로 자동차人문을닷고、

『청량리』

하고 한 마디 운전수에게 명령하고는 팔장을 끼고 눈을 감앗다。

운전수는 속으로 수상하다 하면서도 큰 상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안심하고 모르는체하고 차를 몰앗다。

벌서 청량리가도에는 행인이 드물고 사람도 아니 탄 전차가 웡웡 소리를내고 달릴뿐이엇다。

문임은 가끔 눈을 여프로 치떠서는 운주를 엿보앗다。 그러나 운주는 마치 죽기나 하는 드시 팔장을 끼제 눈을 나려감고 차체가 흔들리는대로 몸을 흔들고잇섯다。

문임은 이 침묵이 견딜수업시 무서웟다。 문임은 참다못하야 가만히 손을운주의 무릅우에 노하보앗다。 그라고는 제손이 거기 잇는줄을 알라고 두어번 눌럿다。 그러나 운주는 아모반응도 보이지아니하엿다。

문임은 무안한드시 그 손을 거두어다가 제 무릅에 노핫다。 그랫다가는 또 안심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팔을 뒤로빽아서 가만히 운주의 허리를 안앗다。 운주는 허리를 한번 움찍하엿다。 그것은 물론뿌리치는 뜻이라고 문임은 해석하고 팔을 다시거두엇다。 그리고는 두손으로 낫을 가리우고 느껴울엇다。 그러나 운주는 아는체 하지아니하엿다。

차는 대학예과 모퉁이를 돌아서 수풀人속으로 달렷다。

문임은 차가 비끗 돌아설때에 창을내다보고야 비로소 어딘줄을알앗다。 그리고는 몸에소름이끼첫다。

차는 일어서허장 아페섯다。 조는듯하던 운주는 손소 차문을 열고 나려서 문임을 보앗다。 문임은 따라나리기가 실코 무서우면서도 마치 못 이길 힘에 끌리는드시 순순히 따라내렷다。 문임은 운주에게 울고매어달리리라하고 여자로서의 최후의 전술을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하면서 운주가 차人갑슬 치르기를 기다리고 서잇섯다。

운전수는 두 사람을 한번 힐끗 보고는 차를 돌려서 다라나버렷다。

『이리 와!』

하고 운주는 한쪽으로 뚫한 길로 압서서 걸엇다。

문임은 그저 무서웟다。 만일 혼인이어 운주가 맘성을 부리면 어쩌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운주의 양해를 어드려을 때에도 무슨 변을 당할슬을 예기하지못한바는 아니지마는 그것은 욕을 먹거나 뺨人개나 마즐 정도리라고 생각햇다。 그만한 봉변을 하더라도 운주의 마음을 미리 풀어서 혼인식을 무사히 치르는것이 상책이라고 밋고 운주가 어떠한 욕을 보이든지 다 당해내리라、설마 죽이기까지야 하랴、하고 와던 일이엇다。 그러나 운주가 욕도 아니하고 때리지도 아니하고 도로혀 극히 냉정하게 되는것이 더욱 무서웟다。

『네!』

하고 문임은 고개를 들어엇다。

『일어나!』

하고 운주는 턱을 추어엇다。

문임은 일어낫다。

弊店創立五週年記念 大景品付大賣出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本鄉區上野二ノ六一七(電話下谷八二四五番)

▲▲▲景品內譯▼▼▼

(1)註文高二十圓以上ナル時 納來ボックス製靴一足宛 (足ノ寸法文數指定下サイ)

(2)註文高十圓以上ノ時 純毛コットンシャツ上下一揃宛

(3)註文高五圓以上ナル時ハ 上等メリヤス上下一揃宛

(4)註文高三圓以上ナル時ハ 上等毛系靴下半打宛進呈

●見よ犧牲的此大奉仕を! ●流なく無代進呈の大景品付 ●精巧無比時計の王タバン ●鐵道省御用のウオルサム ●エルヂン●十五年絶對保證

流行の瑞西製 時計の王 タバン・ウオルサム・エルジン 時間正確 絶對保證

▲御註文ニ際シテ▼ 代引註文ハ內金トシテ註文高ノ三割以上拂込ノ方ニ限リ取扱ヒ內金ナキ場合ハ不取扱 ※送料ハ弊社負擔 ※代引註文者ニ限リ小包料ヲ要セズ 東京八二四五番ヘ振込ノ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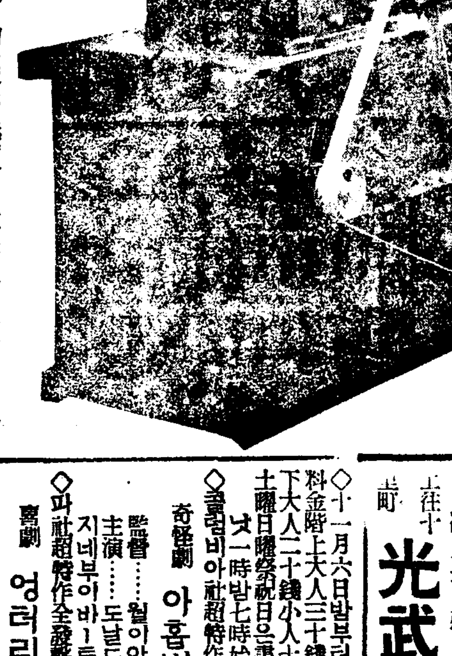
クロム側ウオルサム懷中 / クロム側タバン懷中 / クロム側腕卷 / 十八金HK側腕時計 / 十八金HK懷中時計 (價格表 [illegible])

癌科 婦人科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醫學博士 松本泰治 醫局女醫 李敏信 顧問 工藤武城 電本局②〇四八二・三八九三番・京城北米倉町九四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醫師試驗準備書 漢鮮文醫學講義通信敎授 二錢切手添付 內容見本進呈 今夏募集千名中先到十名(百數一人式)講義十五冊半額 本部 京城府新設町一三九 春眠醫院內

東洋機械製作所實用新案 最新式流行型サービス籾摺機



籾摺機界超革命的優秀機를 本商會는 薄利多賣主義下에 絶對責任附廉價發賣 斯業諸位一次試用乞 (型錄請求進呈)

總販賣店 朝鮮商會 京城府西界町一八九番地 振替口座京城二五九八一

●手紙上手は一生の德!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不許複製)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特價一圓

光武劇場 淑英娘子傳 ◇十一月六日밤부터 料金階上大人三十錢小人十五錢 階下大人二十錢小人十錢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낫一時밤七時始映 奇怪劇 아홉번재손님 ◇파社超特作日本版 喜劇 엉터리六人組 ◇東活映畵社超特作品 時代劇 三千世界膝栗毛 父歸らす 新版 아리랑 前篇 ◇佛國파데나탄特作 ◇朝鮮키네마社作品 羅雲奎映畵의白眉篇 ▲李慶孫프로덕숀映畵 古代小說映畵化 아리랑아리랑아리랑 郷土映畵의하나이다! 勿失再見하시라 ○十一月五日부터三日間大公開 十曜·日曜·祝祭日은 晝夜二回上映!

新富座 新堂町 電本② 朝鮮日報江華支局 電話三十一番

若草映畵劇場 四日ヨリ五日間 佛O·J·O·プロ超特作日本版 ジャン·ミューラ·ボナ·エラ·エン! ヌ★ジャエイヌ·クリスパン主演 ▲第二情報部 L·O·超特作新日本音樂映畵 浮かず子·藤山一郎·徳山璉主演 ▲かぐや姫 モスクワ·キノコムビナート特作 日本版ソヴェト映畵 エル·オルロワ主演 ▲陽氣な連中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經濟解說

루大統領再選

米國好景氣에拍車

李 [illegible]

米國大統領選擧는 十一月三日 全國一齊히 投票하야 結果 루-스벨트氏가 再選되엇다. 來年一月부터 一九四一年一月까지 米國政權을 掌握케된바 四個年이란 期間은 世界的으로 非常時인 이때에 잇서서 決코 짧은 時日이 아니다. 特히 歐洲風雲, 東洋風雲을 못본체하고 米國은 자못 明朗하야 景氣指標는 모다 好調되고 世界經濟會議, 世界平和會議招請說까지 잇는 現象에 비추어 루大統領의 再選은 如斯한 世界經濟를 더욱 具體化시킬것이오 戰爭不安, 政治不安과 軍需生産의 狹攻을 밧고 잇고 歪曲된 景氣를 造出코잇는 諸國에 比하야 米國은 文字그대로의 好景氣에 一層拍車를 加하게 되엿이 確實하다。

×

入個年繼續하야 白堊館의 主人公이된 루-스벨트大統領이 過去三個年九個月에 亘하야 實行한 經濟政策을 民衆이 否定하야버리지안코 再選하엿는데 이는 곳 「뉴딜」의 基盤이라고 볼수잇다。이「뉴딜」政策의 中心이 되는것은 勿論經濟問題로서 「뉴딜」의 核心이엇든 N・R・A와 A・A・A가 違憲되엇슴에 不拘코 民衆은 왜 다시 루氏를 再選하엿는가? 「뉴딜」의 缺陷은 잇섯스나 功績이 만헛든때문에 大衆이 支持한 結果이니 이제 「뉴딜」의 過去功罪를 살펴보기로하자。

첫재 失業者救濟=一九三三年 루大統領就任當日에는 全米에 千三百六十萬人의 失業者가 잇섯는데 最近三年間에 現役及役, 土木事業으로 五百萬人을 救濟하엿스며 其中土木事業으로는 三百五十萬人에게 月八十弗식을 支拂해서 勞働者生活이 維持되고 或은 向上되엇스며 購買力이 생긴 反面에 三個年에 聯邦과 各州는 合計四十二億弗을 使用해는바 그中八四%는 公債에 依한것이며 使用方法에 잇서서 高價, 用途에 잇서서 不生産的이란 批難이 잇다。

둘재 住宅保有者救濟=一九二九年反動은 家主와 이에 放貸付한 銀行其他金融業者를 破産케하얏는데 후-버時代의 住宅貸付銀行을 루政府는 貸付範圍를 擴大하고 特別融通, 擔保期限延長, 利子引下斷行으로 一九三六年六月까지에 三十億弗의 特別貸付를 하얏다。

셋재 産業利潤恢復, 勞働者就業率과 賃利增進=이것이 뉴딜의 中樞가 되는 産業復興法(N・R・A)이엇는데 그 要領은 工業各部門에 特殊規定을 設하야 生産高를 統制하고 價格을 吊上하야 産業利潤을 增大케하고 勞働者使用數를 增加식히며 賃銀을 引上케하기로하고 그方法으로서는 團體交涉權確立과 勞働組合制强化, 勞働時間短縮을 實現하얏는데 一九三五年五月에 이法律은 大審院으로부터 違憲判決이 宣言되엇다。

넷재 農業問題=農業調整法(A・A・A)을 根幹으로 한 「뉴딜」農業政策을 實施하야 一九三五年의 農民所得은 一九三三年에 比하야 約七割이 增加되엇는데 政府의 補助金支出은 年約五億弗에 不過하얏다。이 A・A・A도 今年一月 違憲判決로 消滅되엇스나 政府는 代案으로 土壤保存法으로써 이것을 維持하고 이外에 農産物貸付를 하야 約四十億弗을 貸付하야 約四千萬人의 農民이 購買力을 增進하얏다。

다섯재 市中銀行救濟와 聯邦準備改造=루氏就任前金融界는 大混亂으로 數回의 모라토리움을 發하엿스나 預金保險會社를 設立하야 預金不安을 업새고 復興金融會社로 하야곰 銀行優先株(十三億弗)를 引受시키어 流動資金을 供給케하야 銀行再開에 努力하고 銀行法制定으로 堅實化를 圖하얏다。그리고나서 信用政策上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에 獨裁的工作을 加하야 金融統制權을 十二의 聯準으로부터 聯邦準備局에 集中하얏다。

여섯재 인푸레傾向=富豪稅와 會社留保稅의 增稅로 增收와 共히 富의 分配修正이라는 非難까지 바덧스나 歲出增에 依하야 赤字는 累增되엇다。

일곱재 新貿易政策=[illegible] 金輸出을 禁止로 弗과 金과의 聯繫를 斷하야 弗의 對外價値를 低下식혀 利用하얏다。

여덜재 新通商政策=共和黨의 高關稅政策을 排擊하야 互惠通商協定에 依하야 輸出市場을 [illegible]

아홉재 電力政策=新法律로 [illegible] 電力의 [illegible]

×

「뉴딜」의 實績은 大體以上과 가트니와 루氏再選後의 政策에 對하야 뉴욕・타임스紙는 一、루氏는 過去 過激한 實驗을 行하얏스나 그는 經濟危機에 對한 臨機의 措置로 保守的態度를 取케될것이다。二、루氏가 再選되면 一九三三年以來의 政策에 依하야 獲得한 조흔 結果를 確保할수 잇슬것이다 라고 보고잇다한다。過去에 잇서서 「뉴-딜」을 出發點으로한 米國의 인푸레이숀은 初期에 잇서서는 健全한 政府資金의 民間支出에 依하야 우선 金融緩慢, 低金利가 具體化되엇스며 [illegible] 米國의 [illegible] 赤字財政의 發展을 反映한것은 [illegible] 一九三六年의 決算에 잇서서 赤字는 그보다도 多額인 四十八億弗이 될것을 보아도 恐慌以來의 米國經濟의 發展은 [illegible] 結局 [illegible] 米國의 景氣上昇은 一層拍車를 加하게될것으로 보아 大差업슬것이다。(寫眞은루大統領)

膨脹되는金組網

全朝鮮金組員 百四十七萬人

한달에 一、二萬人식 加入한다고

中農에서 小農으로!

金融組合員의 增加는 最近 去益 加하야 一個月 一萬人 乃至 二萬人平均의 增加率로 現在 百四十七萬人에 達하얏다 한다 이대로가면 年內에는 百五十萬人에 達할것이 期待되는데 特히 殖産契의 普及과 金組加入에 依하야 今後는 更히 激增될 모양인바 注目할 現象은 最近의 組合員增加가 中農으로부터 小農에 依하는 傾向이며 預金、貸出 共히 口數가 金額에 比하야 훨신 增加되고 잇다한다

朝銀副總裁制廢止

滿洲의 特殊銀行副總裁는 松原純一氏로 內定된모양인데 同氏後任에 對하야서는 여러가지 推測이 잇섯스나 朝銀의 副總裁制는 昨年松原氏個人關係로 復活한것임으로 或은 이것을 機會로 副總裁를 두지안코 적어도 當分은 缺員대로 하리라는 觀測이 잇다한다

◇大阪爲替（六日）

對米 賣 二十八弗二分一 買 二十八弗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經濟界消息

○朝鮮米穀協會聯合會幹事會＝朝鮮米穀協會聯合會에서는 來十四日午前十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幹事會를 開催하고 一、社團法人定款作成件 二、第三回米穀大會의 幹事會委任事項決定件 三、發入朝鮮白米不賣問題對策決定件 을 附議하기로되엇다고

○朝郵新船起工＝今春朝鮮郵船에서 機械造船所에 新造注文中인 四千八百噸級一隻은 來十一月十日起工式을 擧行키로되엇는데 來年四月中旬引渡되리라고

○朝信上棟式廿一日擧行＝府內南大門通에 新築中인 朝鮮信託會社社屋은 降雨로 豫定보다 工事가 遲延되엇스나 來廿一日上棟式을 擧行하기로되엇스며 竣功은 來年五月이라고

○北鮮製油工場來月十五日操業＝三井系泰油房經營의 北鮮製油의 淸津工場은 本春燒失以來 復舊를 急히하든바 大體完成되어 機械를 裝置하고 試運轉을 行하야 來月十五日頃부터 操業을 開始할 豫定인바 生産能力은 豆粕日産五千五百枚라고

○米取聯合會總會變更＝七日溫陽溫泉에서 開催할터이든 全朝鮮取引所聯合會總會는 朝鮮取引所樓上에서 午前十時부터 開催키로 變更되엇다고

○朝鮮木材廿日操業＝朝鮮木材工業會社仁川工場은 機械裝置가 今月十五日頃完了될것으로 二十日부터 操業을 開始하고 月末[illegible]

○東洋協會支部長賀田氏委囑＝社團法人東洋協會朝鮮支部長은 缺員中이든바 去十月二十八日附로써 賀田直治氏에게 委囑한다고

取引停止（十一月二日）

▲京城府長沙町四五番地 興福商會李聖熙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五九番地 中根商會 中根信光

經濟寸鐵

膨脹되는 金組의 勢力網 한달에 一、二萬人식 늘어가서 金組員이 百四十七萬人이나된다고。

○

庶民金融의 本意가 徹底하라면 人數增加 자랑만 가지고는 遙遠한 노릇。

○

營利에 흐르는 傾向이 업지안흔 金組의 現機構를 더 改善할 方途는 업슬가?

○

[illegible] 수챙만하면 벗쟁이는 는것밧게……

庶民金融擴充

金組貸出限度擴大와 高額無盡認可할意向

朝鮮의 地方經濟向上發展과 取引單位의 膨脹은 必然的結果로 庶民金融의 經濟單位를 擴大하야 일즉이 金組의貸出限度擴充 無盡의 高額無盡認可等 要望이 잇서서 財務局에서는 이點에 關하야 愼重히 檢討中이던바 朝鮮內經濟躍進은 看過하기어려운 事實이며 이實狀을 考慮하야 大體 다음과가튼 貸出限度擴充을 實現할 意向이라한다 卽

◇金融組合의 貸出擴充

가、村落組合에서는 現行의 一千圓을 三千圓으로擴大

나、都市組合은 現行三千圓을 五千圓程度(未定)로 擴大

◇無盡의高額認可

高額無盡은 現行五千圓인데 利用者의實情을 考慮하야 一萬圓까지認可

間島省에서도 大豆檢查實施

間島大豆는 從前 夾雜物이 만코 劣質로 朝鮮內에 輸入後 難點되어 北朝鮮大豆로 販路를 開拓하고잇는것인데 會寧稅關으로부터 總督府에의 入報에 依하면 間島省에서는 本出廻期부터 間島省 穀物檢査令을 公布하고 大大的으로 特産大豆의 共同販賣를 行하기로 決定한모양으로 北朝鮮의 特産界에 多大한 影響을 가저오게되어 注目된다 間島省에서 今日 實施하기로된것은 搬出檢査와 이와 竝行하는 共同販賣로 그方法은 十月부터 三月까지의 出廻大豆를 新京、琿春、汪淸、和龍의 四縣에 [illegible] 共同販賣所를 設置하야 搬出과함께 時價八割을 支拂하고 共同調製하야 共販할豫定인데 滿洲의 施設로서는 劃期的인것이다

貯銀木浦支店 十六日에開業

貯蓄銀行의 木浦支店은 開設準備中이든바 十六日부터 開業키로決定하얏다 初代支店長은 殖銀으로부터 들어간 岡本正造氏가 任命되어 이미同地에 赴任하얏고 伊森頭取는 披露키爲하야 十二日發 木浦에出張한다고

米日爲替弱保合

【紐育五日發同盟】 今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야 賣二十八弗五十九仙으로 一仙低이오 買二十八弗五十八仙으로 保合이다

◇東京爲替（六日）

對米 賣 二十八弗二分一 買 二十八弗八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朝鮮綿織物統制

檢出檢查의具體對策立案

綿購聯役員會에서

大紡績會社의 朝鮮進出問題에 對하야는 過般 産業經濟調査會委員會에서 아무 具體的結論을 엇지못하고 宿題로남어잇는바 一般論으로서는 大紡績會社의 進出은 適當히 統制할 必要가 잇다는 意見이 만흔데 이러하야 大紡績會社는 低賃金 無統制의 朝鮮을 地盤으로 [illegible] 資本投下의 機會가 잇는 紡績會社는 第二期의 發展時代로 行進하게되엇다 卽 그先鋒인 鐘紡은 現在光州工場의 五萬錘、織機千五百臺의 能力을 가지고잇는데 年內에는 京城에 五萬錘、織機三千臺의 設備能力을 完成하고 다시 滿洲熱河를 原料로 人絹工場을 設立하기 爲하야 平壤에 十萬坪의 土地買收를 마치엇다 其他 全州、大田、群山、麗水에 各其 數萬坪의 工場敷地를 買收하야 多角的으로 纖維工業을 展開하려고한다 다음 大日本紡은 最近 水原에 六萬坪의 敷地를 求하야 綿紡五萬錘를 計畫하고 東洋紡도 現在仁川工場을 三萬二千錘、織機一千二百臺의 綿織能力을 가지고잇다 此等의 全能力이 完成되는날에는 朝鮮內綿布消費 年平均三十二萬俵는 自給하게 될것이며 또輸出에까지 進展할 可能性이 充分하다고 한다 이러한 傾向에 對하야 日本內地의 綿織聯은 五日役員會를 열고 鮮、滿洲、中國關東州에 어든 結論에 基하야 朝鮮의 綿織物檢出檢査及 統制에 對하야 具體的對策을 立案하리라하며 北中國과 共히 朝鮮纖維工業의 動向이 注目되고잇다

一、[illegible] 日本內地産業과 [illegible]

株式 整理低로 不勢

商況 [六日]

前場保勢

今前場은 東新百三十九圓十錢 日産八十三圓五十錢 鐘新百七十七圓五十錢 朝新三十五圓九十錢에 各各寄付되엇는데 새로운 動機가 업서 場面은 比較的閑散하엿스나 東新은 底堅味를 보여 百三十九圓臺를 保持하고 百三十九圓二十錢에 大引함에 따라 朝新三十五圓九十錢 大新七十一圓三十錢 日産八十三圓七十錢에 各各大引되엇다

▲東新 [illegible]

後場不勢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六十錢 日産八十三圓五十錢 鐘新百七十八圓丁으로 不勢裡에 大引되엇다

玉整理를續行

昨後場小戾한 東新은 今朝로 百三十九圓臺를 堅支하야 多少底堅味를 보인것은 注目되나 그로는 日中交涉어림 頭痛거리가 아직도 解決의 曙光이 보이지안코 안으로는 機構改革과 議會制度改革案을 圍繞코 軍部와 政黨間의 抗爭이 漸次深刻化하려는 形勢에잇서서 一沫의 不安이 떠돌고잇스며 게다가 電力國營案의 犧牲이된 電力株의 暴落을 筆頭로 賣人氣는 容易히 解消되지안코 米國大統領選擧는 루즈벨트氏가 再選되엇스나 何等 人氣를 轉換시킬 큰 刺戟도 업스므로 利喰以外에 新規買物이 업고 그러라고 賣追擊도 警戒되는 터이므로 아무튼 過大한 取組의 重荷로 頭重한 東新은 結局玉整理를 續行하면서 小幅保合權에 推移할것으로 觀測되다

雜株買도一巡

循環的으로 材料를 云云하야 買進되던 雜株도 材料는 再三再四 織込되엇스므로 新刺戟을 일키되엇는데 그래도 大反動이 업섯스므로 買安心의 態이나 玉整理에 걸리게되면 深押은 避키 難할것이다 近日 日産系諸株가 强氣의 處分으로 續落하고 人絹株도 買氣一巡이되어 低調를 보이고 紡績株亦是 買物이 繼續되지안코 不振狀態를 보이는等 雜株는 모다 軟化하야 整理過程에 들어간듯한 感이 不無하다

電力株의崩落

電力國營案의 犧牲이된 電力株는 嫌氣投物이 加하야 市勢는 低價로부터 新低價로 崩落하게되엇는데 過去에 電力株는 債株로 가장 堅實한 方面에 投資하야 相當한 有力側이 持株하고잇섯는데 最近은 連日惡性의 落調를 繼續하야 尨大한 資本을 擁한 電力事業은 株數가 만흔것만큼 實로 大打擊이므로 人氣에는 深刻하게 影響하야 市場全般의 人氣를 어둡게하고잇다 그 落潮를 數字로보건대 如左하다

短期	四日前場低價	十一月의高價	比低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宇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日本데질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全羅鑛業新 [illegible] ▲라사 [illegible] ▲關東重工業 [illegible] ▲日産고무 [illegible] ▲日華紡績 [illegible] ▲人造羊毛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熱帶産業 [illegible] ▲大同電力新 [illegible] ▲大同産業 [illegible]

（取引高[illegible]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 課稅率問題에 아즉 警戒하고잇스나 需給關係로 人氣도 相當히 緩和되어 價位觀의 買物이 조금식 現出하야 內國債는 모다 十錢上進하고 外國債도 米貨債는 六分半一圓五十錢 五分半一圓廿錢高를 示하고 佛貨도 卅錢高이엇다

▲甲五分利 一〇〇三〇▲一回四分 一〇〇三〇▲二回四分 一〇〇八五▲佛貨 一九五四〇

▲甲五分利 一〇〇三〇 ▲第三五分 一〇〇八三 ▲一回四分一〇〇九三 ▲二回四分一〇〇九 三 ▲佛貨 一九五六〇 ▲米貨六分半 三六六〇 ▲滿洲公債 一〇〇三〇

期米 頑强이나 伸惱

前場强硬

昨後場阪地二十九圓四十七錢止와共히 二十七圓五十五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四十八錢인 一丁高를 據하고 二十七圓七十二錢인 三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三節四十錢으로 反落함을따라 四十三錢까지 下押하엿스나 結局阪地四十九錢의 最高로 止場함을伴하야 五十八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伸惱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七錢인 一丁低로 始場한後 二節五十二錢으로 結局五十八錢에 止場하다

阪當依然强張 解合도不拘?

二十餘萬石의 大買物을 擁抱하는 阪地田中貞은 昨日潮政及 三木其他弱氣側과의 當限九萬石解合이 成立되엇다 此解合은 軟派側의 要求로 三十錢○臺에서 되엇는데 市勢는 解合도 不拘하고 依然三十圓二、三十錢臺의 高價를 維持한다 實로天下買方의 主力側인 田中貞의 米의 直接看因關係를 보면 나서 現內閣의 모든 經濟政策과 又는 諸物價指數로보아서 米價의 單獨低落을 許하지안코리라는 見地에서 絶對買方針을 取하야 最後의 受米又는 乘替의 方針으로 戰線의 擴張할지언정 軟軍에게 白旗는 擧하지안흘모양이다 그런데 昨後場부터 各地共히 多少軟化하엿슴으로 阪地當限九萬石의 解合을 機로한 觀이 업지아니하나 그러나 解合된後의 當限이 依然頑强함을 보든지 又는 期正의 採算으로보아서 當限은 아즉도 買進할 餘地가 잇스므로 容易히 瓦落은 업슬것갓다고 某硬派는 主張한다

米

……田中貞과 潮政三木其他弱氣側과의 當限九萬石解合이 成立▲그解合交涉에 對하야 軟派가먼저 懇請하엿느니 硬派가 먼저 要請하엿느니하는 市中談이 區區不一▲그런데 解合한後에도 當限이 依然高價를 持續할것을보면 田中貞의 陣營이 依然鞏固함을 可知▲今朝阪地先限四十錢으로 反落을 따라 當地는 四十三錢까지 低落하엿는데 此는 阪地의 關聯關係로 보아서 當然▲그러나 아프로 阪仁兩地의 鞘가 一圓二十丁을 中心으로 一擴一縮하기가 十常八九

六感

株……電力株暴落의 惡氣流에 忽驚한 市勢는 容易한 回復은 難望이며 低迷商狀이되면 材料라고 出現하는것이 모조리 惡材料가 됨이에 그만큼 萎縮하고마는것 ▲아니게아니라 요새가티 惡材料가 加重해서는 市勢도 頭重을 不免 ▲軟派는 이번玉整理를 機會로 相當한 深押을 期待하는 模樣이나 이는 疑問인걸 ▲深押만잇스면 오히려 年末市勢는 壯觀이려만……

期正의 採算觀

當限依然割低

昨今仁川正米市勢는 丸仁並三等玄米 二十八圓九十錢 正租는 一斤八錢一厘인데 玄米一石을 製함에는 적어도 一等正租三百五斤을 要하는데 이것이 二十八圓七十錢에 諸費用一圓五十錢을 加算하면 三十圓二十錢의 原價를 보이고 當限은 二百丁이나 低位에잇스며 正租와 正米와의 採算으로보면 當限은 正米보다 割低이다 그러나 當限의 納會期에 臨迫함을 따라 順鞘로 訂正되고야 말모양인데 當限의 又一段高價를 示할지도 모르는바 正米의 反落으로 寄鞘되지 何如間 採算이 맛게될것이며 正租와 正米와의 鞘도 結局順鞘로 恢復되고야 말것이다 그런데 農家의 態度는 數年來의 經濟力이 潤澤한만치 依然賣惜不急함으로 正租의 瓦落은 期待키難하고 딸아서 正米와 當限의 無理反落은 업슬것갓다 果如何?

今日財界（六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七五八	三高
大阪期米	先限	二九四九	二高
丸三等米	一石	二八八〇	一〇低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二三五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	八錢一厘	
三等	一斤	八錢〇厘	

◆市中金銀價

	一匁賣	一匁買
金	十二圓三十五錢	十二圓五錢
銀	十九錢〇厘	十六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	—
東新	一三八六〇	四〇低
日産	八三五〇	二〇低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糸	二〇八二〇	七〇低
大阪棉花	六〇二〇	五〇低
大阪人絹	七〇〇〇	一〇低
大阪砂糖	一三〇八	三高
고무FAQ	六六錢三〇	二厘五低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當限은 大解合敢行後의 買方田中貞은 昨日 當限을 三〇圓二〇錢以上 指値로賣拔하고잇섯는데 今日도 小川淸廣潮兩店에서 當限을 連接賣拔하야 玉整理에 進出해서 同氏의 對陣은 確實視되고잇다 今朝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中東側、東京側、正米側

買方 寄鞘側、地場强氣、朝鮮側、播州側

各地正米

京城少强

當用小口側의 買氣로 市況은 活氣가 엇서 氣配는 다시 十錢軟化이엇다 ◉三等二八、八〇 四等二八、五〇 一等白米二一、五〇

仁川頭重

定期는 強調이나 目前은 材料缺乏으로 高價買는 警戒되어 市況은 氣重이엇다 ◉三等二八、八〇 四等二八、五〇 一等白米二一、一〇

釜山底堅

市場實物이 千五百叺이오 賣買는 繼續하야 精米家의 買氣가 旺盛하야 實物이 잘 消化되어 場面은 자못 活況을 보엿다 ◉三等二九、〇〇 四等二八、七〇 一等白米二一、四〇

大邱強化

正租實物의 賣이 少로 賣買는 圓滑치못하나 販神方面의 買注文到來와 定期高로 市況은 底堅하야 二十錢高唱이엇다 ◉三等二八、五〇 二八、二〇 一等白米二一、〇〇

群山堅調

日本內地人注文가 相當히 頻繁하게 到來하나 産地의 低價買諸人氣로 比較的 實買不振인데 定期强調와 實物薄에 市勢는 二十錢强化이엇다 ◉二八、八〇 二八、七〇 一等白米二一、四〇

木浦強化

第二回保護發表 待로 氣迷狀態이나 價位에는 當用小口側의 買氣가잇서 市勢는 前日보다 다시 十錢高를 보엿다 ◉三等二九、〇〇 四等二八、七〇 一等白米二一、〇〇

株式 六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金融 六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勢◆ [illegible]

◆日本銀行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六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鎭油沖價◆ [illegible]

◆鎭粕沖價◆ [illegible]

商品 六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지카고期麥◆ [illegible]

◆日本製粉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米 仁川 康益商店

株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光皿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仁川 米期 大 マルタイ トリヒキテン

石金 土金 分析 賣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一〇番地 電話本局二一六三 振替京城一一五四

朝取取引員 アジア證券 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二ノ一・日生ビル